

## 2017년도 졸업논문 소개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의 의미 연구

조 근 학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고는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환유와 은유의 인지적인 수법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이다.

1장에서는 서론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여 관용어 목록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환유 및 은유적인 표현으로 범주화할 것이다.

2장에서는 감정이론과 더불어 본고에서 설정하는 ‘기쁨’ 표현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쁨’의 하위범주를 ‘즐거움’, ‘만족함’, ‘감동’, ‘편안함’, ‘희망’으로 분류했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관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 형태 통사적 특성과 의미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형태 통사적인 특성에는 (1) 관용어는 구와 절의 형태를 가진다. (2) 관용어는 형태의 고정성을 띤다. (3) 관용어는 형태적인 변이성이 존재한다. (4)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삽입의 제약이 있다. (5)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대치의 제약이 있다. (6)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어순 도치의 제약이 있다. (7) 관용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의미적인 특성에는 중의성을 띠는 것, 의미가 전이되는 것, 과장성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했다.

4장에서는 ‘기쁨’ 표현에 나타나는 항목들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크게 신체어와 비신체어로 나누어 다루었다. 그 중 신

체어에 해당하는 목록은 123개 항목이고 비신체어에 해당하는 목록은 45개 항목이다. 신체부위는 ‘가슴’, ‘눈’, ‘얼굴’ 등 18개로 나누어서 살펴봤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을 환유와 은유의 해석으로 양상을 살펴봤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쁨’ 표현의 환유적 양상은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함’과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으로 나누었다. 그 중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함’ 개념적 환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는 66개이고,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 개념적 환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는 12개이고, 비신체어는 4개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은유적 양상은 ‘기쁨은 몸짓 방향’, ‘기쁨은 가벼움’, ‘기쁨은 밝음’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중 ‘기쁨은 몸짓 방향’ 개념적 은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는 16개이고, 비신체어는 4개이고, ‘기쁨은 가벼움’ 개념적 은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는 8개이고, 비신체어는 5개이며, ‘기쁨은 밝음’ 개념적 은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는 6개이고, 비신체어는 2개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관용어 목록 168개에서 개념적 환유로 설명할 수 있는 관용어는 82개이고, 그 중에서 신체어는 78개이고, 비신체어는 4개이다. 개념적 은유로 설명할 수 있는 관용어는 41개인데, 그 중에서 신체어는 30개이고, 비신체어는 11개이다. 개념적 환유와 개념적 은유로 설명하지 못하는 관용어들은 기타로 분류했고, 모두 45개인데 그 중 신체어는 15개이고, 비신체어는 30개이다.

본고의 의의는 ‘기쁨’ 표현의 감정에 대한 관용어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그 환유와 은유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기존 논의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기쁨’에 대한 연구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쁨’ 표현 관용어 목록들을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제시한 것도 본고의 창의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한계점은 본고에서 제시한 모든 관용어 항목들을 은유와 환유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기쁨’ 표현의 관용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류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석사학위 논문

## 『도앵행(桃櫻杏)』의 장면전개 연구

이 민 주

2017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본고는 『도앵행(桃櫻杏)』에 드러난 장면전개의 특징과 기능을 밝히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해 당대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면전개에 대한 미학적 관심을 확인하고 나아가 고전소설에서 서사전략으로서 장면전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도앵행』은 『옥환기봉(玉環奇逢)』, 『취미삼선록(翠薇三仙錄)』, 『한조삼성기봉(漢朝三姓奇逢)』과 연관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영평공주와 정위주, 주처사 등을 주요 인물로 하여 정위주의 시가(嫗家) 입성기를 다룬다. 20종 이상의 이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대 독자들에게 많이 향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의 고전소설 작품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서사를 진행시키는 것과는 달리 『도앵행』은 비교적 단순한 서사전개를 보여주며 특정 지점에서 작품의 서사가 지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서사학 용어인 ‘장면전개’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장면전개’에 주목하여 『도앵행』을 독해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도앵행』의 이본은 25종으로 그 중 8종이 완질본으로 확인된다. 이를 대상으로 분량, 서사단락의 차이, 새로운 장면의 삽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이본을 검토해본 결과 천리대본을 새로운 선본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장면전개의 의미를 확인하고 『도앵행』에 나타나는 장면전개를 추출하였다. 확인된 장면전개는 총 16개로 주로 영평공주의 혼인, 정위주의 수절과 정위주 찾기, 주처사 설득하기 등으로 분류

된다. 또한 『도앵행』에서 장면전개는 전체 작품 분량의 2/3정도를 차지하며 정치하게 서술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확인한 장면전개의 양상을 그 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각각의 장면전개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도앵행』에 드러나는 장면전개는 내용에 따라 ‘탐색, 논쟁, 추리’로 나누어진다. ‘탐색 장면전개’는 파혼 후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탐색자의 시선에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려진다. ‘논쟁 장면전개’는 주처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며 합당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의 결과가 지연된다.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는 영평공주가 정위주 수절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영평공주의 이지적(理智的) 판단을 바탕으로 단서를 통해 합리적인 추리를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앵행』에서 장면전개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도앵행』에서 나타나는 탐색, 논쟁, 추리 장면전개는 각각 다른 장르의 서술 방식을 효과적으로 심화하여 나타낸다. 탐색 장면전개는 묘사의 중첩을 통해 완만한 서사전개를 드러내고 논쟁 장면전개는 침예한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추리 장면전개는 추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는 각각 장편소설, 의론체소설, 송사소설의 서술 방식을 좇는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활용하여 여타의 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술 방식을 풍부하게 구현해낸다.

IV장에서는 파생작으로서 『도앵행』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등장인물인 영평공주를 차용하는 동시에 전작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작품 전체에서 장면전개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서사전략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임이 확인된다. 요컨대 『도앵행』은 여타의 파생작들과 달리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산생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다른 고전소설에서도 확인된다. 『옥원재합기연』의 파생작인 『옥원전해』는 보유작(補遺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홍희복은 『제일기연』의 서문을 통해 소설 향유에 ‘백과전서(百科全書)적’ 수요가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당대 소설 향유층은 서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

고 그 일환으로 『도앵행』이 탄생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향유된 작품이며 다양한 장르의 서술 방식을 하나의 작품에서 구현한다.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장르의 흥미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개라는 소설의 한 요소를 확대시켜 새로운 향유의 즐거움을 만들어낸 색다른 파생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석사학위 논문

##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연구

조 지 혜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본고는 박경리 문학을 상호주관성이라는 주제에서 일관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박경리 문학에 대한 연구는 초기 작품의 주관적 자아의 강조, 중기 소설의 사랑이라는 주제, 그리고 후기 소설의 공동체에 대한 모색이라는, 각 시기별로 두드러지는 주요 사항들을 밝혀냈다. 반면 이들 선행 연구가 주로 루카치의 문학 이론 또는 리얼리즘 문학관을 참조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평의 대상이 된 『토지』와 여타 작품이, 그리고 초·중·후기 소설이 각기 단절적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자아와 타아의 관계인 상호주관성이라는 주제가 사랑의 관계와 언어적 소통이라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경리 문학의 특징들과 각 시기들이 상호주관성이라는 주제와의 관련 하에 일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특히 주관주의적 입장의 상호주관성 이론을 활용하여, 박경리 문학의 내적 논리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주관성이라는 차원과 ‘생명 사상’에 통일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박경리 문학 전체의 이해에 있어 관건은 박경리가 고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보고, 본고는 먼저 2장에서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의 실패와 인물의 비주체적 상태가 병치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박경리 소설에서 주체성이란 곧 인격성이며,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견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격으로 성립하지 않은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서사를 통해, 인



격성이 인간성의 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박경리 문학은 ‘인간으로서 존재함’이란 곧 ‘목적론적으로 존재함’이며, 이는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의식함으로써 어떤 신념을 견지하여 자신의 삶의 시간을 통일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박경리 소설에서 ‘허무’라는 테마를 형상화하는 것이 그러한 신념 또는 세계관의 부재를 의식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해명하고자 했다.

박경리 문학에서 인격성의 의미와 조건을 2장에서 논의한 데 이어, 3장에서는 사랑 서사들을 중심으로 모색된 소통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복수의 인격들 간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박경리에게 회구의 대상이면서 그 성공이 지난한 것이었다. 이는 두 가지 문제와 결부되는데, 하나는 ‘언어’가 전달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주관적 경험이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경리 문학에서 ‘분신’이라는 은유는 하나의 입장을 대변한다. 서로 동질적인 주관적 경험을 지니는 복수의 인격적 주체들, 즉 인격적 차원에서 상동적인 이들 사이에서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소통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경리 문학은 사랑 서사를 중심으로, ‘사랑’을 복수의 인격이 형성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결합으로 이념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경리 문학에서 이상적 사랑을 하는 것으로 의미화된 인물이 높은 정도의 구체성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이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고는 ‘죄책감’이라는 박경리 문학의 또 다른 테마를 형상화하는 것이 소통에서 소외된 자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

이어 4장에서는 두 인격 사이의 소통에서 출발하여, 더 넓은 공동 세계에 이르기까지 상호주관적 영역이 확장되는 방식 및 그 조건이 박경리 문학에서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개체적 경계를 유지하는 복수의 인격들이 공동 세계를 구성한다면, 그 공동 세계는 각자의 세계들을 모두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 핵심에서 비롯된다. 박경리 문학에서 그 공통적 핵심은 유한성에 대한 의식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과 사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한다는 근원적인 공통성을 가지며, 이에 박경리는 ‘대자대비’와 ‘연민’이란 자신과 모든 필멸적인 존재의 공동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사람의 마음’이 부가될 때 ‘무생물’에 대한 공감도 가능하다는 주장 하에, 박경리 문학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의미로서 파악하고 구성하는 가능성이 강조된다. 이에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서 ‘대자 대비’가 공감의 지평에 대한 지칭이며, “애처로움이 투사되는 대상이 바로 실상”이라는 명제가 박경리가 문학적 모색을 관통한 끝에 제시한 결론임을 보이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 세계란 상호주관적으로 경험된 세계이자 상호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며,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무정물에 대해서마저 그것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이다.

후기 소설에서 박경리는 그러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순교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상적 인간인 여성 주인공을 비인간적 현실에 의해 죽임 당한자로 의미화하는 순교자 서사의 전략에서, 독자의 공감과 중오가 의도된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여성 주인공의 특징적인 성격화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온 박경리의 초기 소설 또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중오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에서 후기의 박경리 문학이 모두 현실 비판과, 상호주관적 관점에서의 이상적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토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한’의 추구를 서사적 목표로 삼은 『토지』의 세계는, 결국 내면의 고통을 지닌 인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공동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상상을 서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작가의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는 만큼, 『토지』에서도 박경리는 주관적 인격들의 ‘접촉’과 ‘공감’을 통해 공동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작가적 신념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 1970년대 청년영화의 감각성 연구

홍 혜 정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 논문의 목적은 청년영화에 나타난 감각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전 시기와 변별되는 이 영화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청년영화는 1974년 4월 26일 개봉한 <별들의 고향>으로부터 1979년 2월 9일 개봉한 <병태와 영자>에 이르는 영화들을 가리킨다. 청년영화는 기존 영화와 구별되는 드라마투르기와 영상을 선보임으로써 검열과 불황의 이중고에 처했던 1970년대 한국영화에 활로를 마련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청년영화의 등장은 감독과 관객의 세대교체라 받아들여져 왔으며, 유신 정권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청년의 저항/순응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1970년대 청년은 ‘통블생(통기타 · 블루진 · 생맥주)’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바탕으로 세대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집단으로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당대의 여러 정황들은 기존 연구에서 전제되어 온 청년 개념이 얼마나 유효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포크 음악이나 청바지 등이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통블생’을 자신들의 스타일로 앞세우고 문화산업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집단으로서의 청년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영화의 새로움은 청년이라는 집단의 새로움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년영화를 비롯한 문화 산물들의 새로움으로부터 ‘청년’이라는 표상 혹은 개념이 구성된 데 가까웠다. 청년영화의 등장은 이전 시기의 문화 산물로부터 축적되어 온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영화의 등장과 전개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생성되

고 변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고찰될 수 있다.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매체의 정비를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팽창·분화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한 시청각적 자극의 증가는 당대 한국사회에서는 위기로까지 받아들여질 만큼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층이 시청각적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통되는 지식의 양상 또한 변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영화는 이러한 매체 환경 속에서 부상한 문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청년영화에 대한 비평적인 수식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던 ‘감각’에 주목할 수 있다. ‘감각적’이라는 수식어는 청년영화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세련됨’ 내지는 ‘새로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다소 산발적으로 쓰여 왔다. 이에 비해 청년영화의 경우 ‘감각적’이라는 수식어는 청년영화를 규정하는 핵심 속성이자, 청년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어낸 요인이라 여겨졌다.

청년영화에 대한 당대 비평에서 ‘감각적’이라는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청년영화의 영상 기법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청각적 자극을 매개로 소통하는 매체지만, 영화에도 특별히 ‘감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관객의 관심을 끄는 물리적 요소인 ‘과잉(excess)’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영화에는 ‘과잉’이 빈번하게 출현할 뿐만 아니라, ‘과잉’이 갖는 반내러티브적이고 반통합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풍속’·‘생활’ 등 청년영화의 소재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은 일상이다. 이전 시기의 한국영화 중에도 일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었지만, 청년영화에서 일상이 다뤄지는 방식은 기존의 한국영화에서 일상이 다뤄져 온 방식과 다소 상이하다. 청년영화에서는 허구가 개입되지 않은 기록처럼 일상을 포착하여 전시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대에 시청각적 매체가 팽창하면서 일상을 수거나 사연의 형태로 다룬 서사물들도 함께 급증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 김광주 문학 연구(1932~1953):

상해 체험의 문학적 변용과 아나키즘 수용을 중심으로

김 은 하(JIN YINHE)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그동안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김광주(金光洲, 1910. 7. 9~1973. 12. 17.) 연구가 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가에라는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 연구는 김광주 문학이 놓여있는 원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단절적으로 인지되어온 작가 의식의 연속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둔다. 김광주는 다양한 사상과 문학사조들이 복잡하게 얹히면서 발전되어 가던 1930년대의 상해를 자신의 문학적 세계의 근거지로 삼아 자신의 문학론을 정립해 갔으며 그 바탕에는 아나키즘적 사유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가설이다.

1930년대 중국 상해에서 문학적 출발을 알린 김광주는 근대 한국문학의 지리적 영역의 바깥에서 외로이 문학의 길을 걸어갔던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그가 1930년대 중국 상해에서 경험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주된 대립구도는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미·소 양대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구도로 재편되면서 냉전체제에 이른다는 점에서 근현대 역사적 과도기 거친 문인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이 글은 개별 작가론의 형식을 취하지만 김광주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결 구도로만 파악되었던 한국 문학사에서 아나키즘 문학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1930년대 상해의 문화·정치적 지형을 바탕으로 김광주의 문학 및 이념의 단초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김광주가 중국 현대문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문예관을 형성해나간 과정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장들을 통해서 살펴본 김광주의 사상구조와 역사적 인식, 문학적 사유가 구체적인 정치·역사적 지형 속에서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수준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장에서는 김광주의 사상·문학적 배경으로 되는 1930년대의 상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활동과 문학적 활동에 대해서 조명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상해 법조계(法租界)에서 김광주는 김구·조소앙으로 대표되는 임시정부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하는 한편 아나키즘 조직인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의 단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근대 중국을 배경으로 민족독립해방운동을 전개했던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주변과 사상적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민족주의적이면서도 아나르코-코뮤니즘을 수용한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의 성격이 김광주의 민족·국가관으로 내면화되었으며 한편 중국과 한국 아나키스트 문인들의 교우적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아나키즘은 근대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근대 문학적 사유로 연동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해 법조계는 문화적 아우라가 넘치는 공간으로 그의 보헤미안적 문학 감수성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갖게 마련인 우울한 내면은 낭만주의의 한 갈래인 보헤미아니즘과 이질적으로 혼합되어 역설적인 감성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아나키즘과 상통하며 예술적 전위 의식으로 전유되는 것이었다.

3장에서는 김광주 문학이 중국문단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국현대문학과 밀접한 수용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중국 신문학의 문예사조 일반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 기대여 그의 이 시기의 평론 및 번역 작업들을 중심으로 문예관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 당대 중국 문단에서 화두가 되었던 ‘계급문학논쟁’에 대해서 조선의 신문지면에 번역, 소개하는 김광주의 논조를 통해 그가 상정하는 리얼리즘이 맑스주의 맥락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제외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인 동시에 ‘주관의 진정성’에 방점을 두는 발자크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광주는 중국 프롤레타

리아 리얼리즘의 전개 과정에서 낭만주의를 관념론적 창작방법으로 간주하여 낭만주의를 배척하는 현상을 낳았던 좌경적 오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으며, 그에 비해 낭만주의를 독자적인 문학사조로서 인정하고 비판적 리얼리즘과 배합시켜 복합적인 것으로 내면화하였다.

4장에서 해방 전후의 구체적인 작품을 일관된 작가의식의 연속선상에서 해독하고자 하였다. 각기 1930년대의 상해와 해방 이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과 당대 문학장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먼저 1930년대 상해 도시 형상화를 통해 드러나는 해파문학의 한 특징인 영화적 기법의 수용은 유물론적 변증 방법에 기댄 수용 방식으로 인해 식민지 근대성을 폭로하는 한편 대중의 범주로서 한중 양 민족의 하층민층을 포괄시키는데, 이들은 상호부조의 민족 연대 의식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상해 한인 사회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 김광주의 작품들은 당대의 양심적 지식인, 혁명가, 그리고 하층민층들에 관한 제재로 계열화할 수 있는데, 작품 속 주인공들의 개인적 이력은 근대 도시 상해에 유입되어 신구(新舊)교체의 전환기에 노정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봉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김광주에 의해서 포착되는 인성에 내재하는 ‘에고이즘’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개인과 대중의 자발적인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1930년대 상해를 배경으로 했던 작품에서의 인물형과 모티프가 변주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김광주의 역사적 인식이 탈식민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해방 이후의 김광주의 문학은 ‘반공’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온 바 있으나, 해방 전후의 문제의식의 연속선 위에 두고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당대 사회 및 문단의 지배올로기가 되었던 반공주의와 다른 결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 195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죽음의 재현양상과 그 의미

손 혜 경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 연구는 195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죽음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해봄으로써 이 시기 영화들의 독특한 미학적 특질과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후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양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며 주류 대중문화의 하나로 부상한 이 시기 영화들에 등장하는 죽음은, 장르에 따른 관습적 재현 방식을 위반하거나 과잉 재현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글은 ‘죽음’을 1950년대 영화를 바라보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문화사에 만연한 죽음의 계보 속에, 또 1950년대의 문화적 지형 속에 이 시기 영화들을 위치시키고자 한다.

1950년대 영화를 둘러싼 수많은 모호성의 증언들은 이 영화들 속 죽음으로부터 비롯하기에, 영화 속에 재현되는 죽음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당대 영화가 지닌 감각의 요체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전후 사회 속 무력한 개인들의 죽음을 통해 영화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한 쌍의 남녀와 그를 기초로 한 새 시대의 핵가족으로, 이는 전후 사회에 만연한 재건(再建)의 욕망을 보여준다. 이들의 죽음은 일견 안정적인 사회 질서로의 회귀라는 서사에 종속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재현되는 방식은 서사의 안정적 종결이라는 내러티브 기능을 넘어서는 전복성을 만들어낸다.



1950년대 영화에서 죽음이 과잉 재현되는 첫 번째 방식은 직접적 시각화를 통해 죽음의 과정과 주검을 장면화(mise-en-scène)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운명의 손〉, 〈자유부인〉, 〈지옥화〉 속 전후와 여성들은 그들의 매혹적이며 위협적인 여성성으로 인해 영화의 끝에 이르면 죽음을 맞으며 서사에서 제거된다. 낯선 장소에서 이국적인 모습으로 죽어가는 인물들의 모습과 그를 향한 카메라의 응시는 관객들에게 그들의 매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응시하게 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의 회복이나 반공 국가의 수립이라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세계로의 회귀를 방해하고 정지시킨다.

1950년대 사극영화 봄의 첫머리와 끝자락에 위치하는 〈양산도〉와 〈종각〉이 그려내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는, 전쟁이라는 파국 이후의 현실에 대한 한국영화의 우회적 진단이다. 이는 ‘언캐니(uncanny)’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애상적이고 몽환적인 죽음으로의 경사(傾斜)는 이 시기 사극 영화들이 공유하는 미학적 특성이기도 하다.

1950년대 영화들에서 죽음이 과잉 재현되는 두 번째 방식은, 강박적 결말로서의 죽음이 영화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인과를 부여받지 못한 채 돌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오는 날의 오후 3시〉와 〈화심〉이라는 이 시기의 독특한 멜로드라마들은 삼각관계의 해결책으로 인물의 죽음을 택한다. 여성이자 고아인 인물들은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과도하게 용서를 구하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데, 텍스트 속을 부유하는 진단할 수 없는 전후 사회의 불안이 오롯이 그들에게 덧씌워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죽음은 붕괴된 사회를 통합하지만, 기의(signifié) 없는 ‘죄’와 죽음의 비인과성은 안정적인 사회로의 온전한 회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폭로한다.

〈모정〉과 〈느티나무 있는 언덕〉은 고아가 근대적 형태의 핵가족으로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표백된’ 가족 형성은 과거를 상징하는 기존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영화들은 새로운 가족 형성과 사회 재건을 향한 전쟁 이후의 열망을 강렬히 드러내면서도, 돌출적이고 비극적인 인물들의 죽음이 만들어내는 강한 파토스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이라는 파국이 내포하는 양가적 국면 앞에서 1950년대 영화들은

‘종말’이 아닌 ‘시작’을 그려내는 데에 몰두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형상화할 때에도 종말은 인물들의 만연한 죽음을 통해 그 그림자를 드리운다. ‘불온한’ 개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보수적인 사회를 재건하려는 이 시기 영화들의 욕망은 휴전 이후 한국사회의 타자화의 기제를 보여주며, 이는 타자의 배제를 통한 경계 짓기의 시도와 그 불가능성을 논의한 크리스테바의 ‘아브제시옹(abjection)’과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타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주검의 직접적 노출을 통해 전시되지 않으며, 죽음 그 자체가 아닌 죽음 이후를 재현하고 의미화하는 데로 영화의 초점은 옮겨 간다. 이러한 변화는 <오발탄>이나 <맨발의 청춘>에서부터 발견되는데, 이 영화들에서 인물들의 죽음은 매끈하게 생략되어 의미를 부여받거나 낭만적이고 초월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며,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애도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 이후 한동안 불가능했던 관습적인 죽음 재현의 회복, 장르의 안정화, 4.19 이후 문화적 담론 및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들로 설명될 수 있다.

전후의 혼란기이자 장르의 발생기였던 1950년대 영화에 재현되는 죽음들은 이처럼 의미 속으로 포섭되지 않는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죽음의 얼굴’을 스크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이것이 이 시기 영화들이 타자들을 대면하는 양가적 방식이다. 1950년대 영화 속 인물들의 죽음이 사회의 안정으로 나아가는 서사적 욕망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듯 보이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전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사학위 논문

## 金澤榮의 중국 망명기 交遊詩 연구:

張謇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양 설

2017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명호

본고는 滄江 金澤榮이 중국 망명시기(1905~1927)에 중국문인들과 수창한 交遊詩를 면밀히 고찰하고, 한중 문학교류의 시각에서 김택영의 시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위상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김택영 시문집의 판본을 총망라하고 여기에 수록된 중국문인과의 교유시 전부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아울러 김택영의 산문, 김택영과 교유한 중국문인들의 시문·일기 등의 자료, 그리고 김택영의 시문을 소개한 당시 중국의 시화집·시문선집·잡지·신문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택영 시의 문학적 특징과 예술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김택영과 중국문인의 교유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위에서 그가 각 문인과 나누었던 문학적·학문적 교류 양상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유를 매개로 김택영의 시문이 당시 중국 문단에 소개되었던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김택영과 張謇의 교유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임오군란 직후의 결교로부터 중국 南通에서의 교유까지 40여 년간 이루어진 두 사람의 시문교류를 정리하면서, 그들이 유학을 신봉하고 古道を 숭앙하는 지식인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하여 서로 稱賞하는 知己가 될 수 있었던 경위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장건이 조직한 5차의 문학 활동에 김택영이 참여했던 양상을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김택영이 조선의 遺民 시인이자 조선의 문화 유

적에 능통한 학자로서 장건의 문화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실상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장건과의 교유를 통해 김택영이 유민 시인으로서 중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사실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장건이 주도한 문화사업에 관여했던 문인·학자들과 김택영의 교유를 살펴보고있다. 우선, 김택영이 翰墨林書局을 통해 교유한 서화가 李禎·王賢과의 교유시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문학적·예술적인 교류를 정리했다. 이정이 출판한 『韓國金滄江集選』을 발굴하고, 이 시선집이 김택영의 시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김택영이 한문립서국을 매개로 학자 尤金鑄·嚴復·吳曾祺와 교유하면서 주고받은 시들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교유시에서 김택영은 우금용과 엄복의 西學 연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통학문과 詩學의 맥락에서 이들의 학문과 시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처럼 교류가 주로 전통학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역사서 편찬을 비롯한 조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중시하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택영과 남통 國文專修學校에서 일했던 역사학자 屠壽·呂思勉의 역사·문학 교류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택영이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학계에 소개할 수 있었으며, 그의 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 『滄江稿』로 간행될 수 있었던 사실을 규명했다.

제4장에서는 김택영이 중국 근대문단과 소통한 양상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통·상해의 문단에서 활약한 대표적 문인 徐鑒·張鳳年·張麟年·周曾錦·黃開基와의 문학교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著作林』·『兒童世界』·『民國彙報』·『神州日報』 등 상해에서 발행된 신문 잡지의 문예 칼럼, 그리고 시집 『著涪吟社詩詞鈔』, 袁祖光의 『綠天香雪簪詩話』, 孫雄의 『道咸同光四朝詩史』 등에 수록된 김택영 관련 시문들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전통문학을 고수한 상해 ‘鴛鴦蝴蝶派’ 문인과 북경 著涪吟社의 문인들에 의해, 淸新한 시풍과 조선의 遺民意識을 드러낸 김택영의 시문이 중국의 근대 문단에 소개된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고찰한 김택영의 교유시들은 주로 중국 문인들과의

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국에 대한 근심, 망명문인으로 서의 恨과 죄책감,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 등 복잡한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김택영의 교유시는 격조가 ‘沈鬱’하며, ‘頓挫’의 수법을 즐겨 구사하였다. 이러한 예술적 특징을 지닌 중국 망명기 김택영의 교유시들은 그가 당시 중국 문단에서 조선의 遺民 시인으로서 인정받으며 커다란 문학적 성과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석사학위 논문

## 朱熹 「醉下祝融峰」 詩의 受容樣相 研究

장 문 완

2017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본 연구는 『南嶽倡酬集』에 실린 朱熹의 「醉下祝融峰」이라는 시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전래된 이후 한국 문인들에게 어떻게 읽혔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작품의 한국적 수용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 말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많은 한국 문인들이 주희의 철학을 연구하였고 그의 문학 작품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악창수집』은 단적인 예이다. 특히 그 중 「취하축융봉」은 실제로 한국의 문학과 문화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중국 문학사에서는 중요성이 높지 않고, 또 유명하지도 않은 「취하축융봉」이 뜻밖에도 한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문화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는 ‘방법으로서의 한문화권’을 방법론으로 삼아 『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는 「취하축융봉」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하축융봉」의 수용양상을 규명하였다. 본고는 주희의 시문학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II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남악창수집』의 서지학적 정보와 「취하축융봉」의 기본 성격을 밝힘으로써 「취하축융봉」의 한국적 수용양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절에서 『남악창수집』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전래되었고 전파되었는지를 밝혔다. 明弘治本の 『남악창수집』은 김안국을 비롯한 사절단을 통해 1518년(중종 13)에 『주자대전』, 『주자어류』, 『이락연원록』 등 성리학

에 관한 서적과 함께 조선으로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전래된 『남악창수집』은 당대 명문장가였던 이행이 이 시집에 수록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화운한 이후 조선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특히 정구를 비롯한 퇴계학과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악창수집』은 1562년 이전에 목판으로 初刊되었고, 1585년에는 경주에서 복각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일실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남악창수집』은 필사되거나 주회와 장식의 문집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2절에서는 「취하축용봉」이 주회의 일반적인 도학시와는 달리, 철학적 사고의 韻文적 표현이 아니라 순수한 서정 문학의 성격을 가졌음을 밝혔다. 또한 이 시의 풍격이 호방하기 때문에 본래 성리학파의 시를 극도로 배격하던 청대 문학 평론가들도 이 시에 대해서는 ‘참된 사상(眞性情)’을 품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극찬을 하였다는 중국 문인의 평가를 밝혔다.

III장에서는 조선 문인들이 「취하축용봉」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취하축용봉」이 한국 문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밝혔다. 조선 문인들의 이 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송상기, 김유, 이상정, 신활, 김종정은 성리학의 산수유람관을 가지고 주회의 축용봉 유람을 수양의 공부로 인식하였다. 보통 조선 문인들은 주회가 발한 豪氣의 실체를 浩氣로 인식하여, 주회의 높은 유흥은 ‘仁智之樂’ 때문이라며, 그의 호방한 모습을 수양의 최고 경지를 나타내는 외재적 표상, 즉 건줄 데 없이 홀륭한 성현의 기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안정복과 이익은 주회의 호기의 실체를 타고난 성품, 즉 ‘天性으로서의 豪氣’로 인식하였다.

IV장에서는 「취하축용봉」이 조선 문인의 산수유람과 한시 창작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시 창작의 경우, 주회가 「취하축용봉」에서 토로한 산수지락은 조선 문인들에게 유자가 응당 추구해야 하는 산수지락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취하축용봉」이라는 시 또한 산수지락을 토로하는 한시의 전범으로 조선 문단에 수용되었고, 조선 문인들의 한시 창작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문인들이 이 시를 활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 문인들은 「취하축용봉」을 차운함으로써 맑은 유흥을 형상화하였다. 둘째, 「취하축용봉」을 용사하거나

제3, 4구를 점화함으로써 ‘호흥’을 표현하였다. 셋째, 제4구를 점화하여 산수 유람할 때 얻은 ‘선취’를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逍遙 혹은 초탈의 志趣를 표현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 나혜석 문학에 나타난 주체구성 양상 연구

빅토리아 커들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나혜석은 이제까지 시와 소설로 주목받고 연구되어 왔지만 오히려 나혜석 문학세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전적 글쓰기(life-writing)이며, 그 중 여행과 관련된 텍스트가 상당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 여행문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전적 글쓰기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술에 대한 나혜석의 자의식이다. 나혜석은 문학이든, 미술이든 하나의 예술적 창작행위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나혜석의 문학과 미술은 분리되어 연구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되어야만 한다. 나혜석은 자기 주체의 여러 양상을 글쓰기를 통해서만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그림에서도 자기 주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해진다.

본고는 나혜석이 쓴 글이 대부분 자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나혜석이라는 공적 자아(public self)를 매우 중요한 텍스트적 양상으로 본다. 그리고 그 공적 자아는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라는 발표 매체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본고는 나혜석의 활동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작품에서 구상된 주체의 변모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본고는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당대 남성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나혜석이 자전적 글쓰기,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공적 자아를 구상하는 과정이 그녀에게 왜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대에 문학활동을 지

낸 남성 작가 세 명의 작품을 보며 그들이 나혜석을 어떻게 포착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1917), 민태원의 「음악회」(1921), 그리고 염상섭의 「해바라기」(1923)에 나타나는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등장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남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나혜석의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는 나혜석의 자전적 행위 분석을 통해 나혜석의 변모하는 주체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도니 스미스(Sidonie Smith)와 줄리아 왓슨(Julia Watson)의 자전적 글쓰기 독법에 따라 나혜석의 수필을 자세히 검토하여 저자의 의도와 심리상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들이 추천하는 독법은 자전적 글쓰기를 포괄적으로 보고 텍스트 외에도 내포독자, 발표매체 등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 텍스트의 공연적 요소도 인정함으로써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자의의식과 독자의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전적 글쓰기와 유사하게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림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발표하는 자전적 행위다. 자전적 글쓰기와 자화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적 자이를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옷, 보석, 학력 등 사회적 상징을 골라서 공적 자이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나혜석도 자기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비슷한 과정을 운용한다고 제시한다. 그렇지만 나혜석의 경우에는 완성된 하나의 주체를 꾸미지 않았으나 때에 따라 주체의 여러 양상을 부각 혹은 약화하는, 즉 발표하는 작품에 따라 자기 주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과정을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보다 자기구상(具象)하기(self-curation)로 본다. 나혜석은 예술가로서 글과 그림을 함께 생각하여 그림을 구상하는 것처럼 글 속 자기 주체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석사학위 논문

## 현대 한국어 ‘하-’의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장 요약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현

이 논문은 한국의 방언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와 그와 관련된 접미사 ‘-하-’, 그리고 ‘하-’와 관련된 용어의 활용 양상, 지역적 분포 및 통시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2장에서 동사 ‘하-’의 활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하다; 해’형, ‘허다; 헤’형, ‘해다; 히’형, ‘하다; 하’형, ‘하다; 하’형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다; 해’형은 주요 유형으로 한국의 동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해다; 헤’형은 주로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허다; 헤’형은 주로 충청남도에서, ‘허다; 히’형은 주로 전라북도에서 나타난다. ‘하다; 하’형은 충청도에서 나타난다. ‘하다; 하’형은 주로 충청도에서 실현된다. 각 유형이 나타나는 통시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제3장에서 접미사 ‘-하-’를 ‘명사+하-’, ‘부사+하-’, ‘어근+하-’의 3부류로 나누었다. 각 부류의 활용 패러다임, 유형 및 지역적 분포와 통시적 발달 과정을 논의하였다. 접미사 ‘-하-’의 활용 유형은 동사 ‘하-’와 같고, 지역적 분포는 동사 ‘하-’와 비슷한데, 차이나는 것은 비어두인 위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 ‘하-’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봤는데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규칙 용언은 ‘많다’, ‘같다’, ‘없다’와 ‘귀찮다, 괜찮다’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불규칙 용언은 ‘노랗다’

와 같은 색채어류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활용 양상은 규칙 용언보다 불규칙 용언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공통점은 ‘C허다; C헤’형과 ‘C허다; C히’형이 모두 전라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제5장에서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명사+-하-’, ‘부사+-하-’, ‘어근+-하-’의 3부류, 그리고 ‘하-’와 관련된 용어를 비교해 보았다. 각 부류의 지역적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석사학위 논문

## 부사 ‘바로’의 통사 및 의미 연구

후 총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는 한국어 부사 ‘바로’를 세분하고, 각각의 통사 및 의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바로’를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로 분류하여 ‘바로1’, ‘바로2’, ‘바로3’, 그리고 ‘바로4’로 나누었다. ‘바로1’은 다시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로 세분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형을 서술하고 나서, 기존 사전에서 ‘바로’를 처리한 양상을 살펴 그 문제점과 새로운 의항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유의어 분석 기준인 최은규(1985)의 연구 방법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각 유형에 따라 ‘바로’의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문장에서의 위치, 문장 유형, 후행요소, 생략 가능 여부, 부정문 수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바로1’은 형용사·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 동사만을 수식한다. 이 중에서 ‘바로1-2’는 주로 이동동사를, ‘바로1-3’은 주로 발화동사를, ‘바로1-5’는 주로 작용동사를 수식한다. 초점부사로서의 ‘바로2’는 문장에서 주로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고, 가끔 ‘이렇다/그렇다/저렇다’ 등 지시 용언

을 수식하기도 한다. 또한 ‘바로2’는 부정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3’은 시간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하여 높임 표현, 문장 유형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이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4’는 정도부사로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여 일부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으며 문장 유형 등의 제약이 없다.

제4장에서는 세분화된 ‘바로’의 의미적 특징을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은규(1985)에서 제시한 유의어 연구 방법에 따라 각 유형의 ‘바로’가 유의어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서로 간의 유의관계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통해 ‘바로’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 『연변일보』 기사의 문체 연구

홍 아 름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연변일보』는 광복 후,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최초로 간행한 조선어 신문으로 중국 동포신문 중 가장 큰 일간지이자 중국조선족 신문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다. 지금까지 신문 문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 동포의 조선어 신문은 상대적으로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어로 된 한글 신문인 『연변일보』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변일보』에서 쓰이는 언어는 단지 옛 조선반도의 한 방언으로서의 자료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영향과 간섭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어로 삼은 이중언어화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이중언어화자들의 언어 변천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과 북한에서는 중국어의 영향이 약화되는 추세인 것에 반해 조선어는 중국어의 영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또한 신문 기사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력은 신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그 문체적 특징을 각각 다르게 발달시켰으리라 추측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년의 『연변일보』를 중심으로 그 문체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두고,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 그리고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상을 제목, 전문, 본문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어휘, 표현, 문장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강 규 영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문숙영

본고의 목적은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와 조사로 쓰이는 ‘-이라고’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용문에 쓰이던 ‘-다고’와 ‘-자고, -라고’ 등은 더 이상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고 두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하고, 계사의 활용형 ‘-이라고’의 경우는 조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다고’나 ‘-자고’, ‘-라고’를 각각 개별 어미로서 그 의미를 기술하거나, 인용문에서 문법화한 형식의 일부로서 소개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본고는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와 조사로 쓰이는 ‘-이라고’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는, 문법화한 ‘-다고’류로서 연결어미 ‘-다고’류와 종결어미 ‘-다고’류, 그리고 조사 ‘-이라고’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는 그 형성 과정이 평행적일 수 있으나, 종결어미 ‘-다고’는 다른 형성 과정을 거쳐 온 요소임을 확인하여, 연구 대상을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로 한정하였다. 또 기존 논의에서 ‘-다고’류의 어미로 언급된 의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양보’ 등의 의미유형 간의 구별이 통사·의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조사 ‘-이라고’ 또한 어미와 조사의 구별 기준을 도입하여 그 문법적 지위와 의미가 기술되어야 함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다고’류 어미와 조사 ‘-이라고’의 문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결어미 ‘다고’류는 ‘이유’와 ‘목적’을 다의적으로 나타내는데, 주절 주어의 [의도] 양태 의미가 선행절에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주절 주어의 [의도]는 선행절의 서법, 선어말어미, 서술어의 종류, 그리고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 등의 통사적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유’를 나타낼 때와 ‘목적’을 나타낼 때, 다른 이유 및 목적의 연결어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한편 조사 ‘-이라고’의 경우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연결어미의 계사 활용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보조사로서의 쓰임, 부사격조사로서의 쓰임, 그리고 절을 이끄는 어미로서의 쓰임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고 해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고 해서’는 ‘해서’가 생략되어 표면적으로 연결어미 ‘다고’와 그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것이다. 그에 따라 ‘다고 해서’와 ‘다고’가 형태적, 의미적으로 구별됨을 보였다. 또 ‘다고 해서’의 의미는 ‘양보’와 ‘이유’ 등으로 나누어 다의적으로 기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다고’류가 다른 연결어미나 조사와 보이는 뉘앙스의 차이를 증거성 함축에 기대어 설명하였다. ‘다고’류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를 보고 증거성의 함축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고, 의외성의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 한해서 ‘다고’류의 의미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고’류가 그 독특한 의미로 인해 형성하는 구문을 살펴보았다. ‘N<sub>1</sub>도 N<sub>2</sub>이라고’류의 구문과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문에서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후행절이 생략되어 탈종속화를 거치는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V<sub>1</sub>-ㄴ/는다고 V<sub>1</sub>’ 구문은 ‘나름대로는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역시 굳어진 숙어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였다.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고 재 필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문숙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완화 표현을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그 형식과 기능을 기술하는 것이다. 완화 표현이란 대화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을 말한다. 완화 표현은 화자가 명제를 발화하는 태도를 반영하므로, 발화의 적절성과 관련된다.

본고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형식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적 수단들이 어떻게 ‘완화’라는 동질적인 동기에서 사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완화 표현을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완화 표현을 그 작용 범위에 따라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것,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것,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명제에 포함된 개체나 술어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작동 방식에 따라 다시 모호한 지시 표현과 절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모호한 지시 표현은 지시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화자의 인식적 확실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발화의 힘을 낮춘다. 이는 지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시 범주에 작용하는 것과 수량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절하 표현은 개체의 크기나 술어의 정도성과 절대성을 줄임으로써 발화의 힘을 낮춘다. 이는 다시 정도성을 절하하는 것과 절대성을 절하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둘째,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화행의 적정조건을 조정함으로써 발화의 간접성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화행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단언 행위와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고, 각각의 화행은 다시 예비 조건 및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예비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은 해당 조건의 성립을 불완전한 것으로 표현할 때에,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은 해당 조건을 잉여적으로 명시할 때에 발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화행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완화 표현들이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함을 살펴보았다.

셋째,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나/나.여기-지금’을 다른 참여자 혹은 다른 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발화를 화시 중심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발화와 화청자가 맺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발화의 힘을 완화시킨다.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다시 화자에 작용하는 것과 청자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과거 세계로의 전환과 가능 세계로의 전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화시 중심의 전환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도 하고, 청자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상호작용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화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석사학위 논문

##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대한 연구

배 윤 정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현

본고의 목적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시문적으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되었다고 기술하는 어형들이 통시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모음의 연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 모음에 완전히 동화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어간 말음절 모음에 따라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음 어간(이, 우, 오, 애, 에, 위, 외)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ㅎ, ㅁ’ 말음을 가지는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보았다.

‘ㅎ, ㅁ’ 말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ㅎ, ㅁ’이 탈락하고 난 후 모음어미가 어간의 마지막 모음에 동화된다. ‘이, 우, 오’ 어간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동화형이 나타난다. ‘우’ 어간의 경우 ‘이, 오’ 어간과는 달리 모음 어간보다 자음 어간의 활용형에서 동화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에, 애’ 모음 어간은 전국적으로 동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위, 외’ 어간은 경기·충북·전남 등에서 동화형이 나타난다.

한편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변화, 규칙의 확대, 어간의 재구조화가 그것이다. ‘이, 우, 애, 애, 위, 외’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은 음변화에 의한 것이고, ‘오’ 어간의 규칙은 어간의 재구조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어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규칙은 음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음변화에 의하여 형성된 규칙의 적용 환경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석사학위 논문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 연구

정 계 룡

2017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본고는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병주의 사상은 회색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병주는 중립과 사랑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병주의 중립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윤리적 출발점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병주의 중립은 어느 두 가지 향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방향으로서의 사랑은 이러한 중립적 입장의 방향을 예각화해준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과 사랑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윤리의식이 발현된 양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병주 소설에 드러나는 중립과 사랑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병주 소설에서 중립과 중립을 구체화시켜주는 사랑에 대한 천착은 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통해 나타난다. 『관부연락선』은 등단작 소설 「알렉산드리아」 이후 이병주의 첫 장편소설로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걸쳐서 중립을 보여주는 이병주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러한 중립은 사랑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관부연락선』에 관한 연구는 이병주 작품에 관통하는 중립과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

구의의를 갖는다.

2장에서는 소설의 서술 시점,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표현된 중립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관부연락선』은 총 세 가지의 시점으로 서사화되며 각각의 시점이 소설의 중립을 드러내는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이 유형화되는데, 이러한 서술자의 시선이야말로 중립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좌우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서술자의 구체적인 인물 유형화 방식은 기회주의를 재평가하는 시도로서 『관부연락선』의 문제적인 지점이 된다.

3장에서는 어느 두 가지 향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중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랑을 분석한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인물의 형상화 방식, 인물 간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 등은 중립적 시선으로 유형화되었던 인물들 간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립과 사랑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배제의 범위이다. 『관부연락선』은 중립과 사랑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제의 측면에서 기회주의형 인물들을 제외한 인물들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성실함의 층위에서 고평되는 인물들도 주체성과 더불어 ‘기회주의형 인물 외 타인과의 대화가능성’을 갖춘 인물들이다. 또한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의 전체적인 구도를 지배하고 있는 우익의 시점 및 중립의 입장에 비하여 좌익 인물을 고귀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관부연락선』 자체가 중립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중립적인 인물의 실종을 통해 『관부연락선』은 한국현대사에서 중립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부연락선』은 중립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며,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사랑임을 중립적인 인물의 실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둘 사이의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이분법을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를 탐구하는 중립이다. 최인훈의 「광장」은 중립국을 희망하는 이명준의 자살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이명준의 중립은 ‘초월로서의 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보다 유토피아를 좇은 이명준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병주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는 ‘계급의식의 부재’나 ‘교양주의의 한계’로 평가되기 어려운 이병주 문학 고유의 중립 관점이다.



석사학위 논문

##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장 소 윤

2017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에 ‘감다→깁다, 뉘다→뉘다’와 같이 수의적이지만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보고 공시적으로 그 지리적·언어적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의 개신지와 개신파를 추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어두 경음화 현상의 지리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방언자료집》과 《방언자료집》을 통하여 520개 어두 경음화 단어를 선정하여 그들의 출현 지역 수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다섯 유형의 단어 분포를 통하여 지역별 어두 경음화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기의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남을 개신지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추정하였다. 지리적으로 한국 북부보다 남부, 서부보다 동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더 활발히 실현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음운론적 요소인 어두 자음, 후행 모음, 음절수, 음절구조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어두 자음과 관련하여 어두 자음 ‘ㅅ, ㄱ, ㅈ, ㄷ, ㅂ’의 순서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군별 자음별 실현율 분포를 통하여 어두 자음 ‘ㄱ, ㄷ, ㅂ, ㅈ’는 모두 경상북도 동남부, 경상남도 북부를 개신지로 하여 인접한 지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어두 ‘ㅅ’은 이와 달리 경남

서부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행 모음에 따라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ㄱ,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순서로 실현율이 높다. 그리고 다음절보다 단음절에서, 폐음절보다 폐음절에서 실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제2음절 초성에 따라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에 큰 변동이 없었다. 제4장에서는 어휘·형태·의미론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실현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3장에서 본 음운론적 실현 경향성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먼저 빈도수와 관련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의 빈도수로 나타나고 빈도수와 비례관계 또한 없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품사별 어두 경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 용언에서 잘 일어났다. 형태 구조별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 과정인 합성과 파생이 적용되어도, 어기와 비슷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또한 어두 경음화 형용사와 명사를 기존 의미론적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음이의어에서 동음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몇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5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본고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국어 서술어 구성에 대한 연구

안 희 제

2017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는 전통문법에서 규정된 서술어 개념에 근거하여 서술어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서술어로 분석/확인된 성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동사/형용사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어의 기능과, 어미 결합이라는 국어 동사/형용사의 형태적 특징은 결코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형용사가 주어를 가지고 그 주어에 대해 행위나 상태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 결합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한 다. 어미 결합은 어디까지나 국어의 동사/형용사와 관련된 특징일 뿐, 서술어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외되고 나면, 서술어는 더 이상 동사/형용사에 속한 단어로 제한되지 않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사/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속한 단어나,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서술어 및 서술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하면서, 서술어는 문장 구성과 관련된 통사/의미적 기능으로만 규정되는 문법 단위라는 점, ‘어미 결합’은 서술어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장성분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장 구성에서 단어/구 층위와 문장성분 층위가 구

별되어야 한다는 점, 관형어와 독립어는 기존 문장성분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 문장/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서술어를 갖춘 형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장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소형문’류는 문장의 일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3장 이후로는 동사/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속한 단어나, 통사적 구성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동사/형용사만으로는 문장/절의 구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문들을 살펴보았다.

대상이 되는 구문들은, 보조용언 구문, 양태성 의존명사 구문, 술어명사 구문, ‘이다’ 구문 등이며, 이들 구문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 ‘용언의 관형사형#의존명사#용언’, 술어명사, ‘NP#이다’가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서술어가 이처럼 특정한 단어/구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서술어가 생성문법의 방법론에 의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문법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연구

오 민 석

2017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 창 섭

본 논문은 한국어 명사 중 분포상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단어들의 통사 의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으로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어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명사에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인 불구명사도 있다. 그리고 명사로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수식성 어근도 있다. 그리고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수식 불허성의 한국어 명사도 있다.

1장에서는 한국어 명사에 수식 불허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명사의 분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관형어로 규정한 것은 명사, 수사, 관형사, 관형격 조사, 인용격 조사,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형 어미이다. 수식 불허 명사란 곧 이들 관형어가 선행하지 않는, 관형어를 허가하지 않는 명사를 뜻한다. 따라서 21세기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이들 관형어가 선행하지 않는 명사들을 추출한 뒤 후 보정 작업을 거쳐 대상 목록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형태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의미적 실체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명사란 곧 지칭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시성을 근간으로 하

기 때문이다. 이에 지시 표현을 단일(singular) 지시 표현과 일반(general) 지시 표현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한정(definite) 지시 표현과 비한정(indefinite) 지시 표현으로 다시 나누었다. 그리고 한정의 일반 지시 표현은 배분적(distributive) 지시 표현과 집합적(collective) 지시 표현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가 이상의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형사, 배분사 등과의 공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시 표현의 경계가 뚜렷한 한국어 명사는 수식 가능성을 보이지만 지시 표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한국어 명사는 수식 불허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어의 수식 불허 명사는 불특정 지시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의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4장과 5장에서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요소에 따라 갖는 통사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문법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결국 후행하는 요소와의 결합을 통하여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4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서술성’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이다’ 결합형과 ‘복합서술어’ 형식으로 나누어 그 통사·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다’ 결합형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결합형이 하나의 서술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서술 단위는 모두 선행하는 형식이 뜻하는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수식성’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에’ 결합형, ‘-(으)로’ 결합형, ‘-의’ 결합형으로 나누어 그 통사·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이들 결합형은 대체적으로 후행 요소인 조사의 의미를 따라 수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에’의 의미에 따라 ‘시간’, ‘장소’, ‘원인’의 의미를, ‘-(으)로’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으)로’의 의미에 따라 ‘방향’, ‘자격’, ‘원인’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는 그 의미가 다양하지만 수식 불허 명사와 결합한 ‘-의’는 수식 불허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의 비동격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근대 초기 서울지역 극장문화 형성과정 연구

백 두 산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이 논문은 1880년대부터 1910년대 서울지역의 연행, 대중극장 건설과 운영, 조선인 극장의 관객성과 관람관습, 흥행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 초기 극장문화의 형성을 둘러싼 사회적 기획과 문화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전통, 근대, 식민지가 혼효되는 과정에서 외래 극장문화의 이식과 수용만이 아닌 전통 연희문화의 지속과 토착화의 과정으로 극장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식민지 근대화의 질곡에서 극장문화가 겪은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인 대중극장이 1900년대에는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대표하는 상류 문화공간으로, 1910년대에는 종족공간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I장에서는 극장문화의 전개를 통시적·내재적으로 조망하고자 18-19세기 시정(市井) 민간연희의 전개와 연희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의 민간연희는 한성의 상업도시화 현상과 궁중연희 축소를 배경으로 변성하였다. 전통예인들은 자생적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단속의 주체였던 관(官)은 연희활동에 관여하였다. 지방민 유입에 따른 문화유통과 경강지역 유흥공간의 확대, 기방(妓房)과 저자를 통한 연희의 전파와 확산, 문희연 등 대규모 공연활동을 통한 장시간 공연체제의 정착, 전기수(傳奇叟)의 연행과 구술문화적 특성은 조선 후기 전통 연희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하층 남성 중심 관람자들은 왕자와 기층민의 연희관람에서 보듯 청각을 중심으로 연희를 향유하고 유희적 관람성향을 보였으며, 객석은 계층적

위계에 의해 구성되었다. 중인 부호층은 문화자본 획득을 희망하며 연희 후원자로 부상하였다. 민간연희 활성화, 사행(使行) 경험, 중국 희곡 전파를 배경으로 지식인들의 안목은 높아졌고, 여향문화를 묘사한 한문희곡이 창작되었으며, 극장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였다. 그러나 궁정사회의 유교적 도덕률에 따라 성내 중심공간의 연희활동은 제한되었고 상설적 연희공간은 등장하지 않았다.

III장에서는 개항기(1876~1910) 한성부 극장문화를 다루었다. 한성 개시장 이후 외인 공연활동이 유입되며 1890년대에는 한성 내 중국인 극장(淸人劇場)이 등장하였다. 외인 공연활동은 조선인들의 대중적 연희공간 모색을 자극하여 1899년부터 아현동과 용산에 최초의 상업적 상설 연희공간인 무동 연희장(舞童演戲場)이 출현하였다. 용산 무동연희장의 운영은 외인-관관-자본이 결합된 극장설립 모델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이었다. 1902년 등장한 협률사(協律社)는 연희활동을 독점 중개하고 극장연회를 주관한 최초의 연희 회사이며, 궁내부 희대(戲臺)는 다목적 회관 건물로 건설되어 중국과 서구극장의 구조를 참조하여 개축된 최초의 대중극장이었다. 창부(倡夫)의 판소리와 관기(官妓)의 가무를 중심으로 공연하였던 협률사의 운영은 동대문 활동 사진관이 개장되자(1903) 성세가 꺾였고 영업부진과 전황(錢荒)으로 폐관하였다.

러일전쟁(1904) 이후 본격화된 일제 침략정책은 한성 극장문화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 거류민 증가와 일본식 유흥문화를 배경으로 유곽과 일본식 소규모 극장이 건설되었다. 협률사의 독점체제가 해소되자, 한성에는 외국인과 협력한 조선인 대중극장이 신설되어 마전(馬田)활동사진관, 장안사(長安社), 광무대(光武臺), 단성사(團成社), 연흥사(演興社), 원각사(圓覺社)가 들어선 1907~1908년 경에는 북촌 조선인 극장가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연극 개량론을 배경으로 광무대를 위시한 조선인 대중극장은 단형 창극의 형식을 발전시켰다. 신연극 〈은세계〉 공연(1908)은 창극의 형태를 빌려 민권의식을 담은 정치연설의 감각을 무대에 표현하려는 기획이었으나, 연설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1910년대에 이루어졌다.

개항기의 조선인 대중극장은 전통적 관객성과 판소리·가무 중심의 관람



취향이 지속된 공간이었으며, 극장가기(theatregoing)는 유흥장에 놀러 간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여성관람객 증가와 기생의 존재는 개항기 관음증적 관람문화를 형성하였다. 창극의 등장은 개항기 극장개량의 성과로, 판소리 외에도 <항장무(項莊舞)>나 광대 무언극, 중국 전통음악극의 영향이 보인다. 초기 창극은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단형 창극 형식이었다. ‘항실간품’식 홍보 전략과 대관(大官) 관람을 통해 개항기 극장은 상층의 도락(道樂)이자 도시문화의 매력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저녁 무렵 극장가에 울려 퍼진 취주(吹奏)는 일군의 유흥적 관객을 자극하는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로 작용하였다.

IV장에서는 1910년대 경성의 극장문화를 다루었다. 1910년대 남촌지역은 정치·경제·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하며, 남·북촌 사이에는 점차 경제·문화·종족적 경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유곽과 전문활동사진관은 남촌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조선인 대중극장은 기존의 북촌 지역에 자리하였다. 1910년대 근대적 여가공간의 등장은 여가(leisure) 개념의 확산을 가져왔고, 일제의 극장통제와 검열은 ‘합리화’를 표방하며 위생·풍속의 논리에 따라 일본식 극장문화의 이식을 유도하였다. 1910년대 일본계 자본은 경성의 전문활동사진관 운영과 배급망을 독점하여, 조선인들의 활동사진 흥행과 극장 흥행업 진출은 어려웠으며, 1910년 초·중반 북촌의 조선인 극장은 속속 폐관되었다. 극장환경의 악화로 1910년대 중반 이후 신파극의 경성 공연활동은 위축되었으나, 극장에 구애받지 않았던 구파 연회는 기생의 조직적 활동과 광무대의 존속을 바탕으로 요리점과 야외 가설무대로 공연공간을 넓히며 1910년대 대중적 공연 형식으로 존속하였다.

조선 신파극과 활동사진의 변사는 연설조의 독특한 음성연기로 계몽적 분위기를 구현하였고, 조선인 극장에는 일본식 무대기술과 공연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 해설자 관습과 무대배경·장치 도입을 바탕으로 극서사는 장편화되었고, 신파조 음성연기를 통해 관객은 대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일본 가정비극류 신파극 공연을 거쳐 무대 연기양식이 정착되었다. 구파 연회 역시 신파양식의 무대기술과 공연 구성방식을 수용하여 전통연회를 혁신한 예제를 시도하였다. 조선인 대중극장의 공연예제는 혼효되어, 재담과

신파희극은 신·구파 극단의 공연예제로 각광받았고, 조선식 마찌마와리나 극장의 취주 관습은 조선인 극장만의 고유한 관습으로 남았다. 신·구파 연희의 예제 역시 실화·전설의 극화, 신소설·고전소설의 각색을 통해 점차 조선 관객들의 기대지평에 맞추어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10년대 입장료 인하, 신문연재소설의 공연, 연예면을 다루는 신문매체의 전략, 서양연극예제 공연은 극장 관객층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극장은 여전히 소란한 공간이었으나, 신파극 공연에 나타나는 ‘눈물’의 반응과 관람위계의 형성, 임검순사의 존재를 통해 극장은 점차 근대적 관람관습을 혼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레퍼토리와 극장관습이 토착화되고 구파연희가 활발히 공연되었던 1910년대 조선인 대중극장은 종족적 공간으로 편성되어 갔다. 한편으로 종족공간으로서의 근대 초기 극장은 임검순사와 일본인 종업원으로 대표되는 식민지의 위계질서 경험을 내포한 공간이었다. 1910년대의 극장공간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의 문화적 풍경과 종족공간의 형성을 보여준다.

박사학위 논문

##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 연구:

1966~1980년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안 서 현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논문은 1966년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이, 1970년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이 창간되어 두 잡지가 공존하다가 1980년 강제 폐간되기까지의 시기를 ‘계간지 시대’로 설정하고, 이 시기 비평 담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계간지 시대는 이후 한국문학의 틀을 마련한 설정적 시기로서 의의를 지니며, 매체사적으로는 기존 동인지에 비해 개방적인 체계를, 문학사적으로는 문학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평사적으로는 외재적 비평으로의 전환과 활발한 방법론적 탐색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은 계간지 시대를 주도한 비평가들의 실제 비평 글쓰기 즉 비평적 실천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계간지 시대 비평은 4.19 이후의 두 가지 주요 비평 담론, 즉 ‘순수참여 논쟁(참여론)’과,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4.19 이후 국학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던 ‘전통론’이라는 두 비평 담론의 전환적 전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간지 참여 비평가들은 순수참여논쟁의 소모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론적 탐구를 통하여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다각도로 해명함으로써 기존의 참여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나갔다. 또한 기존 전통론의 두 방향이었던 전통단절론과 회고적 전통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 국사학계의 움직임, 즉 독자적 근대의 논리를 현시한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이를 식민지시대 비판으로 이어나간 민족주의 사학의 성과

를 문학 분야에 적용하여, 한국문학 전통의 연속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을 전통론의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계간지 시대의 비평은 4.19 이후 지성계의 흐름 속에서 제기된 ‘참여’와 ‘(문화적)탈식민’이라는 의제에 대한 본격적 담론 전개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계간지 시대 혹은 이른바 계간지 비평가 그룹이 공동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 식 ‘근대문학’, 즉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적 주체성을 매개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과 보충에 기여하는 ‘네이션(nation)의 문학’의 수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글쓰기가 직접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이 당대 비평에서 커다란 화두가 된 까닭도, 비평가들이 문학사를 논하거나 직접 서술을 시도할 정도로 한국문학 전통의 고유한 논리라는 화두에 천착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기존에 ‘민족(민중)주의 대 자유주의’ 혹은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양립 관계로 설명되어 온 두 계간지의 공존은, 실은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분업적으로 수행한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한국에서의 ‘근대문학’을 1990년대 이전의 문학, 즉 1980년대까지의 문학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실상을 보면 1980년대에는 문학의 역할이 다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사회과학이론이 담론 장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문학 부문이 지향 담론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간지’라는 문예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고 한국문학의 참여와 전통의 논리를 마련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였던 ‘편집자-비평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 시대야말로 ‘근대문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계간지 시대에 고유한 시대성이 부여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평 방법론의 탐구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중심의 내재적 비평에서 벗어나 ‘작가-작품-독자’라는 문학적 소통의 회로를 연구하는 외재적 비평이론이 지속적으로 탐구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독자나 작가의 위상에 대한 탐구나 다양한 문학적 참여의 방법론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대중산업사회화에 대한 인식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대중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대중문학론의 활발한 전개로 이어지게 된다.

흔히 지적되는 외국문학 전공자 중심의 인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계간지 비평가들은 주로 서구 이론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방법론적 기여는 비단 외래 이론의 단순 수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서구 계간지들의 체제와 그 바탕이 된 이론을 폭넓게 참조하여 문학과 비평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고안해냈으며, 특히 푸코와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인식론적 단절을 가져오는 질문으로서의 비평 방법을 실천하였고(『문지』), 또 이에 대한 대화적 응전을 통해(『창비』) 자신들의 비평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이 시대 계간지 비평에는 푸코 식 ‘고고학’과 ‘계보학’의 질문법이 도입되었다. 가령 ‘지금 한국문학에서 참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고고학’의 질문방법이라면, ‘한국문학의 전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또 배제되었는가’가 ‘계보학’의 질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1.2절과 2장 참조).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창비』가 창간되어 『문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인지들과 공존하였던 시기이자 계간지 비평의 ‘과제 설정’의 시기인 1966~1970년의 비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시기에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은 비평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하고, 다음의 두 가지 담론적 과제를 설정한다. 문학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독자와의 소통의 모색, 그리고 참여의 조건인 개인 주체의 성립을 위한 비평적 노력이 참여론의 과제로, 문화적 식민지성의 극복과 기존의 전통론 혹은 문학사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전통론의 과제로 각각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적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리비스주의(『창비』)나 푸코 식 문화적 고고학(『문지』)의 방법이 긴밀하게 참조되었다.

3장에서는 『문지』가 창간되면서 『창비』와의 비평적 대화가 보다 활발해진 ‘이론 논쟁’의 시기인 1971~1975년의 계간지 비평 글쓰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 시기에도 참여론의 후속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하는데, 이는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의 영향과 극복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사르트르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계간지 비평가들은 작가의 위상과 문학적 참여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펼친다. 또한 이 시

기 『창비』는 루카치의 참조를 통한 리얼리즘 이론의 심화를, 『문지』는 바르트의 이론 소개를 통한 독자적인 참여의 논리 모색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은 평단의 리얼리즘 논쟁의 전개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문학사를 둘러싼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창비』는 민족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문학사론을 전개하며, 『문지』는 김현이 공저자로 참여한 『한국문학사』의 서술과 그 공과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전통의 연속성 해명이라는 과제에 주력하였다.

4장에서는 그동안 모색된 비평 논리가 보다 구체화에 이르는 ‘비평관 정립’의 시기, 즉 1976년부터 두 계간지가 강제 폐간을 맞는 1980년까지의 계간지 비평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그간의 계간지 비평의 독자 이론은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문학에서의 민중성 혹은 대중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대중문학론으로 새롭게 전개된다. 이와 같은 대중문학론은 다시 계간지 비평가들이 파악한 당대 기술산업사회 혹은 대중소비사회에서의 문학의 전망 문제와 연관되면서 종합적 비평관으로 발전해나간다. 또한 전통론의 영역에서는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이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김현의 문학사 서술 시도가 단독 저술 『한국문학의 위상』으로 이어지는 등,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명제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비평 논리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박사학위 논문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오 자 은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의 핵심이 한국 중산층의 자기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모순을 탐색하는 데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기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의 다른 구성 존재들을 타자화하고 타자를 각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검토하고, 그것이 계속 균열되고 결렬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박완서 소설의 가장 큰 동인임을 살피고자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적 형상의 사적 영역으로만 이미지화되었던 중산층 가정이 타자화의 다양한 전략이 발생하는 정치적 공간이며, 끊임없이 형성 중인 상태로서 그 역동성이 박완서 소설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국가 담론으로서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비어있음’이 놓여있다. 한국의 경우 6.25 전쟁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유산이 붕괴된 후, 강력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아래 산업 부르주아 미발달의 파행적 양상을 보이며 근대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소 외부적으로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중산층이라는 키워드의 내부-중산층이 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수밖에 없다. 박완서의 경우 소재적 차원이 아니라 중산층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며, 그 형성 과정에서 벌

어지는 모순과 불화가 소설의 사건을 이룬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칼 슈미트에서 상탈 무페로 이어지는 중심 개념인 “적대”와, 데리다의 논의를 차용하여 헨리 스테이튼, 무페 등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구성적 외부”를 방법론으로서 적용하였다. “구성적 외부”는 공동체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우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구별함으로써 존재한다. 이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 즉 ‘적’을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를 위해 아래의 논리를 구성하였다. “적대”가 단순히 누가 나의 타자인가를 발견하고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내부에 들여보내고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포함과 배제의 작업이라면, “구성적 외부”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한 포함과 배제가 반복되면서 이 경계는 불확정적으로 머물게 되며, 이때 포함도 배제도 되지 못한 이질적인 타자들이 출현한다. 이로 인해 내외부의 위계는 전복되면서 경계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는 포함과 배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력에 대한 성찰까지 유도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장은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위한 예비적 논의로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자기정체성 형성과정의 출발조건이자 사회적 기원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중산층을 공적 영역을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사적 영역으로서의 구조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성을 매개로 중산층이 형상화됨으로써 중산층의 이미지는 비정치적으로 배포된다. 이는 이른바 중산층 이상이 먼저 존재하고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현실이 이를 뒤따라 가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이 중산층의 집단적 자아이상을 탐색하는 과정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정체성 형성이 계속 지연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주인공들이 자기정체성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가치들은 “보통사람”이라는 외장, 상류사회의 양식, 품위, 명예, 지수성가의 자부심, 새로운 중산층 가정의 부권 등 단일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모방의 대상이 되는 대타자는 자아 이상의 내용의 원천, 혹은 그것을 승인하는 권위로 나타나며 이 대타자의 존재형식은 불확정적으로 묘사된다. 주인공들은 이들을 선취하고자 하지만 미완 상태로 보류되는데 이를 중산층 구성의 지연 양상



으로 검토했다.

4장에서는 자기정체성 형성 과정이 “적대”를 통한 “구성적 외부”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때 “구성적 외부”는 집단적 경험뿐 아니라 실정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6.25의 기억과 가난, 복덕방 중개인들과 마담뚜, 친일파와 벼락부자, 영동-8학군의 외부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가 외부에 의존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결정 불가능성과 아이러니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구성적 외부”와 “적대”의 형성에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80년대 소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정치적 존재들이 중산층 가정에 등장한다. 이들은 운동권 대학생-중산층 부모의 자식, 또는 중산층 가정의 과거 운동권 전력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이름 붙일 수 없는 타자(성)’와의 대면은 자기정체성을 둘러싼 경계에 의문을 남긴다. 우선 운동권 대학생들은 중산층의 계층 추락 공포와 맞물려 불가해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정치적 문제를 선악의 도덕으로 환원해보려는 부모들의 일차적 시도는 결렬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긋남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죄의식과 사회적 감정으로서는 우정을 모색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운동권 전력이 있는 중산층 가정들이 자신 내부의 타자성-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소화하고 현재를 모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연대의 낭만화, 정치적 대상화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중산층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자기 갱신의 정체화(正體化)로서 의미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완서 소설이 타자화의 균열 과정과 외부화에 내포된 권력행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중산층 가정이 고정된 내면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정체화하는 역동성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 모양 명사의 어휘의미론적 연구

謝 華

2017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인간이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빛, 모양, 크기, 위치이다. 대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크다’, ‘작다’, ‘두껍다’, ‘얇다’ 등의 형용사나 ‘반짝’, ‘벌떡’, ‘아장아장’, ‘깡충깡충’ 등의 부사 외에도, ‘달걀모양, 선모양, 세모꼴, 네모꼴, 배꼴’, ‘외형’, ‘모습’, ‘외모’, ‘생김새’, ‘몸매’, ‘뎁시’, ‘티’, ‘태’ 등과 같은 명사들이 있다. 이런 명사들은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형상(形狀), 생김새, 자세(姿勢)나 태도(態度)를 의미한다. 본고는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인간이 시각으로 지각하는 그들의 생김새, 형상(形狀), 자세(姿勢)나 태도(態度) 등을 의미하는 명사를 모양 명사라고 명명했다.

한국어에는 이런 모양 명사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기초적인 어휘도 적지 않다. 모양 명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형태론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룬 반면, 의미론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인지미론의 방법을 이용해서 현대 한국어 모양 명사 각 단어의 어휘의미를 밝히며, 모양 명사들의 의미가 확장되는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인 모양 명사를 정의하며,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모양 명사를 분류하며 모양 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했다.

본고의 제2장은 기본적 논의로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다루었다.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원형이론을 소개하며, 고전범주이

론과 원형이론의 차이를 밝히고, 다의어의 원형의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했다. 그 외에도 의미 확장의 기제인 은유·환유이론을 언급했고, 다의어의 복수의미들 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도식망 모형(schematic network model)을 소개했다.

본고의 제3~5장은 모양 명사를 형성하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각각의 장에서는 해당하는 모양 명사에 대한 의미들을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형상(形狀), 생김새]인 모양 명사 ‘(X)모양(模樣)’, ‘(X)꼴’, ‘X형(形)’, ‘X상(狀)’, ‘X새’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얼굴 생김새]인 모양 명사 ‘(X)모습’, ‘(X)상(相)’, ‘X모(貌)’, ‘X용(容)’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態)’[=자태(姿態), 태도(態度)]인 모양 명사 ‘(X)맵시’, ‘X매’, ‘(X)매무새’, ‘(X)티’, ‘(X)태(態)’, ‘X가짐’, ‘(X)품’을 다루었다.

본고의 제6장에서는 모양 명사의 전반적인 의미 확장 패턴을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 부정의미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에서 문법적인 의미로’ 등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제7장은 이 글의 결론으로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며 논문의 의의 및 남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박사학위 논문

## 동아시아 신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돌 신화소 연구

전 금 화

2017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고는 한국 구비서사에 나타나는 돌 신화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돌 신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한국 설화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돌 신화소의 사적(史的)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지닌 동아시아 제 민족, 즉 중국 내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 및 일본 구비서사에 나타나는 돌 신화소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제 민족의 구비서사에 나타나는 돌 신화소의 존재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상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세계 기원과 돌 신화소의 경우 천지 창조와 일월 창조에서, 인류 기원과 돌 신화소의 경우 인류 석생(石生)과 인류의 창조에서, 종족 기원과 돌 신화소의 경우 시조 석생과 시조 출현에서, 증거물 형성과 돌 신화소의 경우 석화(石化)된 인간의 증거물과 창조 실패의 증거물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교 검토를 통해 네 방향의 한국 돌 신화소의 특이성을 추출하였다. 첫째 돌을 질료로 한 창조는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돌 신화소이지만 창조에서 돌을 다루는 주체가 전부 여성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한국 돌 신화소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시조의 모석

으로 등장하는 돌의 경우 남녀 시조 모두 잉태하는 동아시아 제 민족의 모석과는 달리 오로지 남성 시조만 잉태하는 특이성을 확인했다. 셋째 특정 인물의 탈것이 되는 돌의 경우 그것이 구멍 또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했다. 넷째 금기 위반의 이유가 공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개인적인 혹은 보편적 인간의 욕망의 문제인 점, 그로 인해 석화되는 대상이 전부 여성으로 나타나는 점이 또 하나의 특이성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한국 돌 신화소의 특이성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째, 한국 구비서사에서 여성이 창조주체로서 돌을 다루는 모습은 모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돌 신화소의 여성적 원형성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구비서사에 나타나는 돌 신화소의 여성적 원형성은 그 본래 모습이 지워진 채 남성 시조만을 탄생시키는 모석이나 특정 존재의 탈것이 되는 돌 속에 내속되는 바 이는 부권적 질서 내에 있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한다. 셋째, 여성적 좌절의 증거물로 구전의 장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돌과 돌 신화소는 여성의 조력자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창조주체로서의 여성적 원형성을 지우고 남성 우위의 상징적 차별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고가 동아시아 신화의 맥락에서 규명한 한국 돌 신화소의 특이성과 의미는 돌 신화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화에서 전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로 남아 있는 돌 신화소 속에는 한국 구비서사의 생생한 역사가 담겨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신화의 맥락에서 한국 돌 신화소의 의미망을 조명하는 일은 한국 돌 신화소의 원형적 면모를 추출하는 작업인 동시에 다양한 돌과 여성의 관계상을 통해 여성사를 해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구 슬 아

2017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명호

이 논문은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의 산문을 작품에 구현된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삶과 문학세계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현전하는 김종직의 산문 전편에 대한 정밀한 주해 및 창작연도의 추정을 바탕으로, 생애의 변화나 정치적·사상적 특징이 산문에서 어떤 주제의식으로 형상화되었는가의 맥락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현전하는 『점필재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발굴하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지금까지 한 번도 문학 작품으로 분석된 바 없는 『彝尊錄』을 문학 작품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의 교유관계를 재구하는 데 있어 김종직이 宦路에 들어서기 이전의 시를 모은 시집인 『悔堂稿』를 전면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측면을 최초로 밝혔다.

먼저 II장의 예비적 검토를 통해, 김종직의 생애를 세분화하고 그 학문과 사유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교유한 인물을 중심으로 김종직의 삶을 추적하였다. 학파나 당파에 초점을 맞추어 그룹의 동질성을 규명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지역이나 중앙 정계에서 교유한 인물, 『점필재집』 시집에서 확인되는 인물 등을 망라하여 道統이나 학파의 관점을 떠난 인간관계 또는 교유 관계의 실상을 재구하였다.

III장부터 V장에서는 김종직이 정치적·경제적으로 한미한 향촌 사족 출신이라는 점, 목민관 활동을 오래 하였다는 점, 중앙관료로서 성종의 총애를 오래도록 받았다는 점 등 주요 생애 환경의 특징을 기준으로 그 산문의 주제의식을 ‘향촌사족으로서의 자기인식’, ‘목민관 활동과 책무의식’, ‘중앙관료 활동과 정치의식’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통시적으로 형성 및 지속된 김종직 산문의 주제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김종직의 주제의식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되어 평생에 걸쳐 일관된 것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를 가문 中興에 대한 개인적 의지, 성리학적 규범의 실천 주체로서 향촌 사족의 역할에 대한 고민, 명분론에 입각한 현실참여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이준록』을 중심으로 士人으로서 김종직의 내면의식을 분석한 결과 부친 김숙자가 고매한 학업과 인품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강상의 문제에 연루되어 평생 外職을 전전하는 등 현달하지 못한 것이 김종직의 사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종직은 『이준록』의 창작에 『소학』적 글쓰기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준록』을 ‘조선의 『소학』’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종직의 가문의식이 향촌 사족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송대 주희가 지방에서 펼친 자발적 네트워크 운동과 상통하는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김종직이 실천적 경제학을 분명하게 계승한 공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장과 V장은 김종직의 정치적 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목민관 활동기와 중앙관료 활동기를 살펴보았다. 김종직은 낙후된 지방 문화를 중앙의 수준에 준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士人和 國家 사이에 향촌이라는 공간을 위치지우고, 향촌 사인들의 엄격한 자기규제와 자발적 학업 매진 및 실천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즉 진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중앙조정과 달리 향촌의 몇몇 뛰어난 인재들이 향당에서 도덕성과 높은 학식을 선보여 주변을 감화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향촌의 문화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이것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경우 조선의 문명을 완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향교의 신창, 서적의 출판 및 보급, 향사의제의 마련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오당의식’으로 표출되는 바, 같은 지역의 백성들이나 사족들 간에는 진심어린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嶺南 地域史를 유교적으로 재인식함으로써 그 문화적 位相을 계승하고 提高하려 하였던 의지를 드러내었다. 김종직은 목민관으로서 영남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지역의 건치연혁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 등을 목민관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그 지방의 특징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직은 산수 유람을 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經世의식을 표출하였으며, 遺蹟을 탐방하며 오늘날의 현실에 경계할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고자 한 鑑戒의식을 드러냈다.

목민관의 활동을 마치고 중앙정계에 복귀한 뒤, 김종직은 날카로운 경세 의식을 보이는 대신 君臣上下의 관계에 입각하여, 신하로서 임금의 교화를 적극 보좌해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낸다. V장에서는 중앙관료로 활동하던 시기의 김종직의 산문에 나타난 정치의식을 ‘守成期 君臣 윤리에 대한 勸勉’, ‘權臣들에 대한 비판 의식’, ‘文學의 使命에 대한 모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종직은 上下關係에 입각한 穩健한 治道를 추구하며, 임금에 대한 권계보다는 주로 신하들이 수성기의 정치를 보좌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충을 바탕으로 그 직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음을 밝혔다. 성종대가 조선 건국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흐른 수성기라는 점에서, 김종직은 임금의 마음가짐이나 정계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철리적 권계를 하기보다는, 주로 왕도정치를 이룬 실제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성종을 이미 천리를 체현한 존엄한 존재라 여기며 그 천리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신료들이 왕도정치를 보좌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충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 직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여겼다. 김종직은 조선중기 이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 사대부의 위상을 제고하였을 때에야 실천 가능한 君臣共治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신료들에 대한 임금의 배려와 예우, 공정한 처결 등을 바탕으로 한 君臣相得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할 것을 주장한 것만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김종직이 권신들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묵인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 특히 훈구파 권신들에 대한 비판에서 보여주듯, 개개인의 잘못을 꼬집어 문제제기하기보다는 정책적 수립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인학자로서 김종직이 조정의 인재들에게 문학적 재능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화국을 이루기를 바랐던 문명 의식을 고찰하였다. 김종직은 당대 조선이 정치적 안정기에 들었으며, 독서와 정치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점차 배출되는 文治의 시기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김종직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학문의 착실한 연마와 도덕적 품성의 건지를 통해 확보된다고 여겼다. 이를 통해 내면에 온축된 학식이 풍부하고 도량이 넓은 인재들이 배출된다면, 그것이 경술로 발휘되거나 문장으로 발휘될 때 조선의 정치와 문명이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김종직은 당시 조선이 추구해야 할 질서와 도덕에 기반을 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도덕적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실천’의 문제에 주목하여 조선을 성리학적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그러한 김종직의 삶의 방식에 호응하는 수많은 제자 및 후배들이 등장하고 그의 학문적 가치를 함께 실천해감에 따라, 김종직은 15세기를 지나 조선 중기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師로 여겨질 만한 존재였음을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 은 혜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이 글에서는 이광수 소설에의 ‘암시된 저자(implied author)’가 만들어지는 양상과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소설 구조의 자전적 성격, 다성성(多聲性)의 구조를 밝히고, 작품이 발표된 당대 독자들의 읽기 맥락에서 후대의 독서 맥락과는 차별화되는 의미 생성 지점을 살펴보았다.

이광수는 작가의 ‘인격’이 그에 의해 생산된 작품의 질 여하를 결정한다고 믿었고, 이 때 인격이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감수성·감정·의지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소설가 개념과는 다른 이러한 특유의 작가관은, 그의 소설 속에서 유사한 감성을 지닌 인물의 반복적 형상화, 인물의 심리를 날카롭게 비평하는 서술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서사 창조로 이어졌다. 더불어 텍스트 외부에 위치하는 실제 작가 이광수의 존재를 상기할 만한 다양한 논란을 낳을 정도로 뚜렷한 ‘문학적 인격’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광수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 효과를 소설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채롭게 활용함으로써 당대의 종교, 학술, 정치 담론과 소설언어를 결합하여 현실과 관련된 특유의 의미 체계를 생성해 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설 장르가 ‘자전적’인 독법으로 읽히도록 하는 장르 혼성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특정한 의미를 발화하는 저자상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반복 변주하는 방식, 당대의 다양한 담론을 구조화하는 특유의 서사적 ‘플롯’을 설정하는 것, 소설 속 시공간적 배경의 확장과 현실 지

시의 충위를 다원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설들에서 체험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고뇌의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愛か』, 『김경』, 『방황』과 같은 초기 단편소설과 『육장기』, 『꿈』, 『무명』, 『난제오』와 같은 일제 말기 심경소설, 그리고 『그의 자서전』, 『나』와 같은 자서전형 소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소설들에서는 각각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이 인물들을 외재적 위치에서 바라보는 서술자의 존재, 에피소드 배치의 방식, 실제저자의 다른 작품들의 의미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부 텍스트성(intratextualty)의 활용을 통하여 아이러니스트, 고행자, 대외적 페르소나와 자의식 사이의 분열된 자아상이 구축된다. 이들 소설에서 독자는 일제에의 협력에 대한 자기 정당화, 논설에서 구축된 공적 인격과 배치되는 자의식을 부각시키는 특유의 저자상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글의 III장에서는 『무정』, 『흙』, 『유정』에서의 ‘탐색서사(Quest narrative)’나 『재생』, 『사랑의 다각형』, 『애육의 피안』, 『그 여자의 일생』에서의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 등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플롯 형태가 암시된 저자의 존재성을 구축하면서, 실제 작가의 신념이나 사상과 뚜렷한 연속성을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무정』, 『흙』, 『유정』은 다양한 사건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행로와 내면적 가치관을 찾아가는 주인공을 내세우며 그것이 사회적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탐색 서사의 형태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정(情)과 인격의 관계 탐구를 토대로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재생』, 『사랑의 다각형』, 『애육의 피안』, 『그 여자의 일생』은 당대의 풍속, 특히 젊은이들의 애정 풍속도를 묘사하는 소설로서, 당대 현실을 ‘이기주의/이타주의’ 혹은 ‘물질/정신’ 지향적 태도의 대립 관계의 틀 내에서 바라보고 인물군을 대립적으로 그려내는 소설이다. 이들 작품은 풍속의 표면 아래 도덕적 가치관의 대립을 바탕으로 두고 그에 입각하여 인물과 사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 지향적 인물들의 ‘회개’나 ‘개심’의 장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정신적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재판

장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기독교적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즉, III장에 속하는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종교·정치·학술 등 당대 담론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이 발표된 당대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작가의 시도를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다.

IV장에서는 역사소설이나 알레고리적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거나 인생의 흐름의 보편적 이치를 통찰하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가,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다양한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순신』, 『이차돈의 사』, 『세조대왕』, 『원효대사』에서 암시된 저자는 ‘충의’, ‘신의’, ‘대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난국의 시대에서의 요구되는 지도자상을 제시한다. 『사랑』, 중편 『꿈』에서는 ‘병/치유’의 모티프, 조신 설화를 변용한 우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세계의 모든 인식의 틀로 보는 암시된 저자의 서술 의도가 강조된다. 이러한 암시된 저자상은 유심론적 사유를 통해 19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 이후의 엄혹한 전시 체제, 폭력과 갈등의 세계를 대면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입장과 연결된 것이었다.

이처럼 이광수 소설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암시된 저자’상은 식민지 당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정조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하는 실제 저자의 서술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독자가 감지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 현실 변혁의 이상 추구, 역사와 인생을 통찰하는 자로서의 암시된 저자상은, 이광수 소설을 하위 장르 구분에 관계없이 ‘자전적’인 것으로 읽도록 하는 독서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즉 ‘심경소설’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명백한 자전적 소설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소설들 이외에도, 내부텍스트성의 활용이나 역사적 인물 형상화를 통해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자전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독서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신문 연재 장편소설들에서의 이상주의 추구의 암시된 저자상은 당대 종교, 정치, 역사 담론과의 교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설 언어의 다성성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당대의 새로운 담론을 소설 안으로 개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비중이

큰 이광수 소설에서 담론의 선택과 배치, 그에 따른 서사적 플롯의 조절 양상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김진규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본고는 한국 전후소설이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수용을 통해 한국인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고자 했음을 살폈다. 기존 논의가 전후문학의 보편추수를 비판하면서도 ‘보편’을 전유한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등을 기준으로 한국 전후문학을 평가해왔다면, 본고는 프랑스 실존주의 소설 속 서구(주체)중심 성과의 갈등이 한국의 자기소외 인식과 극복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서구의 전통 위에 형성된 프랑스 실존주의 사상과 문학이 제국주의와 서구중심성을 노정하고 있었으며, 비서구의 실존주의 수용이 탈식민의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폈다. 서구사상사에서 ‘소외’란 기본적으로 ‘자기소외’를 뜻한다. 하지만 본고는 서구의 자기동일성이 자기부정성에 근거한 것과 달리 한국인은 타자에 의해 자기동일성을 상실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소외’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자기소외 극복 모색은 서구적 주체 정립 방식으로는 이뤄질 수 없었다. 본고는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서구(주체)중심성이 한국 전후소설에 일으킨 균열과 모순이 탈식민 신생국가였던 한국의 정체성 모색에 촉매 역할을 했으며, 최인훈 등이 의식적으로 서구적 주체 정립을 자신의 작품에서 재연(再演)함으로써 타자에 의한 자기동일성 상실을 주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비인(非人)’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전후 실존주의 문학으로 서구 실존주의 문학을 비판하고, 한국의 자기소외 극복 모색이 거둔

성과로 ‘보편적 인간’에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과제이다.

실존주의는 자기규정성으로서의 행동을 통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길을 제시해주었다. 한국 전후문학 공간에서 이러한 실존주의적 ‘행동’이 한국의 자기소외 극복과 주체 정립의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장기관 위의 행위자’였던 한국인은 ‘행동’을 통한 주체화 모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반행동성’은 한국 전후문학의 특성이 되었다. 전후문학이 한국의 구체적 역사 속 ‘소외’를 외면하고 서구의 주체 정립을 모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 본고는 전후소설가들이 보여주는 모방을 ‘재연(再演)’으로 규정하였다. 서구 실존주의 수용을 원본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재현(再現)이 아니라, 차이화를 통한 자기인식을 목표로 하는 ‘재연(再演)’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 전후문학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타자를 자기활동의 객체로서 소모해온 서구의 역사는 타자를 자기동일성의 도구로 삼는 폭력성과 유아론적 주체의 우스꽝스러움을 은폐했다. 따라서 타자에 의해 자기동일성을 상실한 한국인이 그러한 서구적 주체를 재연(再演)할 때, 그 주체의 폭력성과 우스꽝스러움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 ‘재연’으로서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수용은 자신이 재연하는 주체의 우스꽝스러움과 폭력성을 인지하고, 또 그러한 모방이 오히려 자기소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대적 주체 정립을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 전후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을 수준 낮은 모방이 아니라 의식적 ‘재연’으로 이해할 때, 서구 문학은 영향의 절대적 원천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국인의 자기소외 극복과 참 자기동일성의 산출을 위해 끊임없이 대결하는 상대 혹은 그것을 위한 미증물의 역할을 한다.

오상원, 선우휘, 박연희, 최인훈은 한국인의 자기소외 형상화와 그 극복의 모색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네 작가는 다시 오상원과 선우휘, 그리고 박연희와 최인훈으로 나뉜다. 오상원과 선우휘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주체화를 시도했다. 두 작가는 표면적으로는 우익 테러리스트와 한국전쟁기의 국군, 베트남 파병 국군 등을 내세워 한국의 현대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형상화했

다. 하지만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이들의 행동이 역설적으로 소외의 조건을 끊임없이 환기했으며, 이는 행동의 지양과 부정이라는 ‘반(反)행동성’으로 나타났다. 두 작가에 나타나는 행동성과 반행동성의 갈등은 실존주의적 주체가 타자와 맺는 폭력적 관계를 전면화하면서, 그들의 창작 경향을 변모시켰다. 구체적으로 오상원은 행동을 통한 주체 정립을 그리는 것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란 환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행동을 지양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선우휘는 우익 청년단과 남한 지배층이 보여준 행동의 맹목적 폭력성과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일체의 행동을 지양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오상원과 선우휘가 현대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그림으로써 자기소외를 극복하고자 했다면, 박연희와 최인훈은 한국인의 자기소외를 직시함으로써 타자에 의한 자기동일성의 상실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비존재’ 혹은 ‘비인’으로서의 인물을 형상화했다. 박연희는 중일전쟁과 해방공간, 한국전쟁과 독재정권이라는 구체적 현실 아래에서 자신의 삶이 타자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부여되는 상징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인물을 보여주었다. 타자에 의해 자기 ‘과거’와 단절되었고, 타자가 규정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자각한 인간은 일체의 상징적 타자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인간 실존’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 아울러 박연희는 자신의 행동으로 고통받는 타자 앞에서 ‘타자에 의해 규정된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인물을 형상화했다. 절대적 부정성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고통받는 타자 앞에서 수치를 느끼며 그들과 연대하는 윤리적 주체는 한국의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이 도달한 하나의 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인훈은 한국 사회 자체가 박래품인 상황에서 행동을 통한 주체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인의 자기동일성이 타자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서구의 주체 정립과 행동을 과잉 모방하는 ‘연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폭로했다. 타자에 의해 자기동일성을 상실한 ‘비존재’ 혹은 ‘비인’으로서의 주체 정립은 한국의 근대와 주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기규정이라는 서구의 ‘환상’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본고는 ‘보편적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한국인을 통해 그 ‘보편적 인간’을 심문하고, 또 ‘인간’에 대한 진실을 주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2장에서 5장까지의 배치는 타자에 의한 자기소외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타자에 의한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 주체 정립은 타자를 자기동일성의 도구로 삼는 서구적 주체의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해 고향을 떠나 자기 자신을 상실한 또 다른 고통받는 타자와의 연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 전후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을 ‘재연(再演)’으로 파악한 본 논문은 전후문학을 한국문학사의 단절로 이해하는 기존의 평가와 서구문학을 기준으로 한국문학을 평가해온 비교문학 연구 경향을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학위 논문

## 〈구인회〉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 예술가적 존재론 연구:

김기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김 정 현

2017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본 연구는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 1930년대 〈구인회〉 문학의 언어의 문제를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로 다루고 이를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개념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로 논의한 것이다. 본고의 시도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성을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학적 계보 속에서 검토하고,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추구했던 지성적이고 ‘현대적 예술’의 맥락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학사적 인식 속에서 〈구인회〉 모더니즘은 흔히 ‘반카프적’인 정치성 또는 순수문학, 또는 당대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미 모더니즘의 불완전한 수용이나 피상적인 문학 그리고 예술적 자율성의 실현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현대적 문학에 대한 자부심인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구인회〉의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가 단순히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순수성만이 아닌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에 기반한 예술적 정신성 추구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기림과 이상 그리고 정지용 등으로 대변되는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의 목표는 도시-모더니티라는 현실과 세계의 ‘변용’을 통해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주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텍스트와 이미

지를 통해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지녔던 것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추구하고 가능성의 실현에 기반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은 진보적, 계몽적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득찬 현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며, 동시에 이를 새롭게 ‘변용’하고 자신들의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유토피아적 지향성’에 있다. 이러한 〈구인회〉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바다’와 ‘달’ 그리고 ‘나비’의 모티프로 나타난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의 고귀한 공주로서의 ‘나비’ 그리고 이상의 「실낙원」 연작의 ‘새로운 불과 홍수 같은 달’ 이미지 그리고 정지용의 「나비」와 「호랑나비」 계열의 ‘죽음을 초극한 나비’의 모티프들은 이들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관의 근본적 정체를 드러낸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인회〉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텍스트를 통해 세계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극한적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구원하려 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를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인회〉 예술의 근본적 정체는 도시-모더니티로서의 세계를 미학적으로 변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미학적 환상을 추구했다는 점을 파악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도시를 배회하거나 관찰 혹은 비판하려 한다는 기존의 산책자 논의들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서,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인 사유의 충위를 의미화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들이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예술가적 인식을 토대로 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단순히 산책자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도시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변용하는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주체’를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연구방법론은 보들레르, 니체 벤야민 등을 통해 지금까지 ‘미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1930년대 모더니즘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검토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어느 정도의 비교문학적인 논의를 중심에 둔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주목하

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수용과 역학관계가 아닌 미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친연성에 있다. 보들레르와 니체로부터 기인하는 ‘영원성’이라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래적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비판과 안티테제의 차원 혹은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술가들은 모두 도시-모더니티의 세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긍정했으며, 이러한 미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을 구축해 나간 존재들이다. 즉 파리와 경성이라는 지역적 위계가 아닌 미학적인 유사성과 정신적인 친연성이 보다 중요하게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예술적 자율성’으로 이야기되어 온 〈구인회〉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단순히 진보와 계몽, 합리적 이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예술과 철학이 모더니티의 문제에 대해 사유했던 핵심에는 세계를 새롭게 ‘데포르마시옹(변용)’하고 그것을 ‘메시아’적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시간에 대한 추구를 형상화해내는 미학적 사유가 그 중심에 있다. 이처럼 ‘나비’로 대표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는 그들이 구성해나갔던 새로운 조선 문학과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추구를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구인회〉가 추구했던 화려한 미학과 예술의 성좌형세, 즉 ‘교만하고 오만한’ 별과 같은 큰 예술가(성군: 星群 - 별무리)들의 모습이란 이질적이고 불온한 예술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텍스트 그 자체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논문

## 주시경학파의 문법 연구에 대한 고찰: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을 중심으로

金 海 锦

2017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본 연구는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과 이규영을 주시경학파로 규정하고 그들의 문법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시경학파의 성립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주시경학파의 문법 저술에 나타난 각 학자의 문법의식을 대조하는 것을 택한다. 여기에서는 문법의식을 한국어의 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이나 질서에 관한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사용한다. 20세기 초 한국어학자들은 문법 연구에서 소리에서 문장에 이르는 단위를 포함시켜 논의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을 크게 문법관, 문자관, 표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주시경학파의 문법관은 일반 언어학적 원리와 한국어의 특수성을 동시에 전제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규범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자관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문자를 소리와 상대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문자는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고려한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표기법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낱말의 배열 위치에 따라 모아쓰기와 풀어쓰기를 제안하였는데, 모아쓰기를 할 경우,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주장하고, 풀어쓰기를 할 경우, 가로쓰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법을 제3장부터 시작되는 각론에서 소리, 품사, 조어, 문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소리의 정의, 소리의 분류, 음운 현상을 살펴 보았다. 주시경학파는 소리를 물리적 성질과 조음음성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음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원소적 단위의 설정과 원소들의 합성 즉 분합이라는 음운론적 단위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태소 체계에서의 음운 현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단어에 대한 정의, 품사의 분류, 개별 품사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시경학파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을 단어로 설정하였다.

단어로 설정된 것을 주시경은 초기에 7개, 6개로 설정하고, 중기에 9개로 변동되다가 최종적으로 6개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같이 9품사로 분류하였다. 이규영은 《온갖짓》은 6개, 기타 저술에서는 9개 품사로 분류하였다. 주시경이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를 ‘임’에 묶은 것은 김두봉이 분리하여 ‘모임씨’, 즉 현대한국어에서 말하는 독립언에 포함시켰다. 이는 김두봉이 주시경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개별 품사론을 살펴보면, 주시경의 이론이 대체로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수용된다.

제5장에서는 현대한국어학에서 조어법을 논의할 때 다룰 법한 내용들인 단어의 구성, 파생법, 합성법, 합성어의 파생, 품사 통용 등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단어의 구성을 파생과 합성으로 파악하였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품사 통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규영은 이외에 합성어의 파생을 다루었다.

제6장의 통사론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문장을 서술어와 종결어미를 갖추고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시경은 문장을 이루는 단어,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 등 범주적 단위를 설정하였지만 김두봉은 절과 문장을 설정하였다. 주시경은 문장의 성분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으로 설정하였다. 김두봉은 주어, 서술어, 관형어와 부사어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문장의 성분을 주시경학파는 그림으로 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 즉 도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김두봉에게 수용된다. 종속접속문과 이른바 주격중출구문에서 주시경과 김두봉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 최윤 소설에 나타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 연구: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회색 눈사람」을 중심으로

라 라 청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연구는 인간은 ‘기억’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는 추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관련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한 고통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기억’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작품화하고 있는 최윤(1953. 7. 3~)의 초기 대표작들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와 「회색 눈사람」(1992)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 두 작품이 ‘기억’과 ‘고통’의 문제와 연관하여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역사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소외된 희생자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은 세계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뿌리 뽑힌 방랑자가 된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상처와 아픔을 홀로 회고하면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최윤이 이 두 작품에서 사건의 날짜나 장소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



품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암시된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설 「회색 눈사람」은 1970년대 유신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은 실제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기의 직후에 출판되어 작품 외부의 현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역사적 배경이 이처럼 암시적이고 단지 유추 가능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출판 시기 상 여전히 정부의 통제로 인해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작가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요구되었던 당시 정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이자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작품이 모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기억’(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망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3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스토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작가는 주인공들이 1인칭 시점에서 개인적 기억과 회상에 의존한 자신의 서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최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또 기억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인물을 국외자로 형상화함으로써, 고통과 연관된 기억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 소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엄마의 총살을 목격한 후, 그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한편으로 이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회색 눈사람」의 젊은 여성 주인공인 강하원은 1970년대 지하운동권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기억을 잊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현재 그는 애써 억눌러 온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환기되는 상황에 놓인다. 최윤은 이 두 소설에서 주인공의 기억을 통해 70년대 유신 정권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된 한국의 격동적 현대사를 조명하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여러 층위에서 내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전제로 본고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회색 눈사람」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최윤이 ‘고통’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밝히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과거의 고통에 대한 대처방식을 더욱 깊

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최윤의 작품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회색 눈사람」은 모두 기억과 고통 사이의 연관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비교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최윤이 기억을 재현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에 기대어 최윤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최윤의 작품들은 생물학적으로 전달하는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서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품은 물질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서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집단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을 이러한 두 차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차원으로,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연관시켜 작중인물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하는지 또한 왜 다시 기억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소설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으로, 개인적 기억은 어떻게 집단기억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또한 더 넓은 집단적·문화적인 기억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최윤의 작가의식을 파악하고 텍스트 밖에 있는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소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2장은 최윤의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적·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와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는 작중인물의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킨 허구적인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작중인물들이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왜 망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개인적

인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작중인물과 함께 형성하는 사회적 기억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과정에서 최윤의 소설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부재하는 상태의 이유, 그리고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에 나타난,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고통에 대한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한 대로 최윤의 작품들이, 사회적 기억이 부재한 문화적 기억의 인공물이라는 판단 하에,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중인물 사이의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기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한 문학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최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한편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까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윤의 두 작품들이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박스’(memory box)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의 상자들은 문화적 기억을 가지는 매개물로서,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고 인간이 망각하는 경향을 방지한다. 이 메모리 박스 안에는 작가가 창조한 개인적 상처와 고통에 대한 작중인물의 기억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관련된 경험, 의견, 그리고 기억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기억의 융합을 구현하는 최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본고는 최윤의 사상과 의도를 밝히고, 최윤의 작품을 상처와 고통을 재현하는 기억과 관련된 다른 메모리 박스와 비교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3장에서는 최윤이 이 두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기억을 파악하고, 최윤의 작품들이 문화적 기억의 광범위한 범주 중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하여 ‘고통’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본고의 접근방식을 통해, 최윤 문학을 보다 심도 있게 독해하는 한편 작가로서의 최윤 및 그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죽음 의식 고찰

류 정 정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연구는 박완서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중추(中樞)로서 ‘죽음’ 의식에 주목하였다. 박완서는 개인체험을 끊임없이 소재화한 작가이다.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부여된 삶과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삶을 위한 죽음의 이야기에 천착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박완서 장편소설에 형상화된 죽음의식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을 분석하고,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에 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박완서의 작가의식과 문학관을 구명하고자 한다. 박완서 문학은 전쟁에 의해 살해라는 사회의 금기를 집단적으로 위반한 ‘6·25’를 창작 동인으로 삼고 있다. 박완서는 여성을 전쟁,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만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은 전쟁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지 않고 전쟁을 통한 파괴와 폭력, 고독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는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 개념의 주요 속성에 해당한다.

2장에서는 박완서의 등단작인 『나목』을 대상으로, 이를 통해 전시의 죽음 의식과 관련해서 죽음이 삶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경의 시각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전시와 수복직후의 서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것은 ‘고가’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박완서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그리면서도 생명 의지 또는 재생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작가는 은행나무의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싹이

트는 계절의 반복을 통해 한국전쟁도 언젠가 끝날 것이며 서울도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사랑이 결핍된 전쟁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초월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3장은 『목마른 계절』에서 재현된 전시 적지 3개월의 이데올로기 과잉이 빚어내는 참상을 통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작가 의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의 도시상과 이데올로기 과잉의 전쟁 참상을 ‘에로티즘’ 개념으로 분석하며 염상섭의 『효풍(曉風)』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전시의 서울은 ‘한발기’에 처한 땅덩어리다. 전쟁 직후 이 땅덩어리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에 의해 고목이 되었다. 박완서는 하진의 일가를 통해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군정과 이념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염상섭의 『효풍』과의 비교 결과,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의 극복을 모색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4장에서는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대상으로, 타자의 죽음을 통해 이기주의를 성찰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이 작품은 당시 한국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재건 과정을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이 소설은 ‘희생양’인 동생 오목이의 죽음으로부터 수지의 자기 정서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마음을 ‘재건’하려는 재생, 극복의 양상이 드러난다.

박완서의 장편소설에는 전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전쟁 및 죽음 혹은 죽음의식은 작가가 유년시절에 겪은 죽음의 체험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박완서는 전쟁 중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이는 작가적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작가 박완서는 주인공들의 고통스런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인공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 저편의 영원성에 주목하였다. 박완서의 소설은 전쟁을 통한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형을 통해, 죽음을 통한 진정한 삶의 모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죽음 의식 고찰

곽 흥 연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월남작가 이호철의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인식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호철에게 있어 공간은 크게는 이남과 이북, 작게는 원산-부산-서울로 나뉘며, 이러한 공간 이동은 작가의 공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호철에게 있어 ‘장소’의 기원이 되고 있는 고향 원산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인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과 1960년대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호철 특유의 한국 사회에 대한 거리적 감각과 도시 공간 형상화 작업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호철의 작가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호철 소설에는 도시 공간이 자주 등장하며, 이때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는 이호철 문학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도시소설’의 개념이 유효함을 시사하며, 그의 문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도시소설의 공간은 작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작가 의식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푸 투안(Yi-Fu Tuan)의 논의에 따라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을 탐구하려는 본고의 작업은 이호철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독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독자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이호철의 전쟁 체험과 월남 및 풍부한 독서 경험으로부터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호철 공간 인식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고향 원산의 로컬리티와 원산 배경의 작품을 고찰한다. 단편소설 「백지풍경」과 「만조기」는 이호철의 작품 중 드물게 1950년 10월 경 국군이 진주했던 원산 마을의 변화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원산 마을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며, 고향 원산은 이호철에게 있어 월남 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장소’의 기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호철의 고향 원산 인식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피난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의 공간적 재현을 통해 중심부 도시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과 전후 자본주의의 재편을 살펴보았다. 피난지 부산은 한국 사회의 축도로, 이 소설은 ‘완월동 제면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부산의 공간 표상을 잘 보여준다. 소설 속 인물들은 자기 ‘이념’ 또는 ‘실리’의 선택에 따라 공간 이동을 거치며, 작가의 자전적 인물인 ‘나’는 아직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변두리 지대에서 새로운 ‘장소’ 찾기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 『정화가족』 등의 텍스트를 통해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전사(前史)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1960년대 수도 서울의 공간지리학을 살펴보면서, 그와 동시에 『재미있는 세상』과 『인생대리점』을 통해 도시적 삶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급속적인 근대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는 1960년대 서울은 욕망과 좌절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이는 이호철의 소설에서 상경민들의 삶을 통해 잘 그려진다. 작가는 이와 같이 중심부에 편입될 수 없는 주변부 인물들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이 물질적 유흥과 장소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침윤되지 않으려는 정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의 새로운 분위기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표상을 통해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후 근대화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만원

이다』를 『소시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1950년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을 다룬 이호철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부 도시의 공간 표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형상화 작업에 주목하여 작가의 공간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때 이호철에게 있어서 원산-부산-서울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작가의 공간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부산과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인식의 바탕에는 고향 원산 인식이 놓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월남작가 이호철의 소설에 나타난 공간 인식을 통해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작가에게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간의 장소화’ 양상을 분석하며, 작가 이호철과 그의 문학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 『구래공정충직절기』의 음모 화소 연구

강 나 래

2017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본고는 『구래공정충직절기』에 나타난 음모(陰謀)의 양상을 분석하여 음모의 서사적 기능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하여 이 작품에서 음모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에서 음모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래공정충직절기』는 북송(北宋) 초(初) 실존인물인 구준(寇準, 961~1023)을 중심으로 허구적 가계를 만들어 가문 내외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흡입력 있게 그려낸 한글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가정과 정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모를 총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음모를 삽화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서사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하였다. 또 선인군 인물이 음모에 빠져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를 여타 한글장편소설 처럼 천의(天意)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 인물에 의하여 의도된 결과로 해석하면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음모에 초점을 맞추어 『구래공정충직절기』를 분석하는 작업은 작품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의 음모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장에서는 음모가 작품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도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음모를 정의하였다. 1절에서 내린 음모의 개념을 바탕으로 2절에서는 음모의 양상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작품에 형상화된 음모를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음모의 양상을 먼저 음

모의 발생 및 전개 공간에 따라 가문 내부의 음모와 외부의 음모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음모 실행의 목적에 따라 전자는 가권 승계와 관련된 음모, 개인의 내적 욕구 실현과 관련된 음모로 후자는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획득에 관련된 음모, 개인적 욕구의 공적 실현과 관련된 음모로 나누었다.

네 가지 분류를 토대로 작품을 검토한 결과 가문 내부의 음모는 단약이나 도술 등을 음모 추진에 쓰지 않는다. 또 선인군 인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 다른 한글장편소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방식(음모적 사유로의 유도, 강박적인 증거 수집)이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이때 『구래공정충직절기』는 문제 상황의 발생 원인을 무조건적으로 친의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문 내부의 음모에서 공모자들의 처벌은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모자 가운데 용서를 받는 인물은 죽내 인물이거나 음모대상과 군신의 관계로 얽혀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가문 외부의 음모에서도 신이한 방법은 음모 추진에 쓰이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수집해 협상에 나서거나 때를 기다려 음모대상의 결백을 증명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명철보신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모자들의 징치가 복잡한 양상을 띠어 징치되어야 할 인물이 서사 안에서 용서도, 처벌도 받지 않는 미완적 상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용서를 받는 공모자는 음모대상과 부자 관계, 군신 관계, 사제 관계에 놓여 있는 까닭에 혹은 인정(人情)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으로 그려져 처벌 제외 대상의 선정 기준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III장에서는 『구래공정충직절기』의 서사에서 음모가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였다. 1절에서는 이 작품에서 음모가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여 이야기의 흡입력을 높임으로써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래공정충직절기』는 음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독자에게 공개하지만 선인군 인물들을 문제 상황을 초래한 인물이 누구인지 간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 음모의 발각이 지연될수록 긴장감이 커지도록 구성하였다. 또 가문 내부의 음모가 등장하지 않거나 소강상태에 이른 지점에 가문 외부의 음

모를 삽입하되 연쇄, 파생의 구조를 활용해 작은 단위의 음모에도 사건의 개연성을 마련하였다. 다만 연쇄, 파생의 구조로 사건의 결속성을 높여 서사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은 가문 내부의 음모에서 두드러지며 가문 외부의 음모는 음모대상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문제의식을 반복 및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

2절에서는 작품에서 음모가 사건의 중요한 순간마다 삽입되어 진부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건의 현실감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을 확인하였다. 음모가 서사에 자주 활용됨에 따라 작품 속 음모는 사건을 지루하고 산만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음모가 지닌 상투성은 독자를 작품으로 유인하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음모에 내포된 문제의식, 음모 추진 및 해결 방식, 공모자에 대한 징치 방법 등에서 확인되는 현실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의를 토대로 『구래공정충직절기』의 음모가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에 음모가 두드러지는 작품이 등장한 이유를 고민해 보았다. 1절에서는 이 작품이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서사 기법을 모색했음을 확인하였다. 『구래공정충직절기』는 가문 내부의 음모를 개연성을 지닌 유기적인 틀로 구성하여 독자를 서사에 몰입시키는 한편 가문 외부의 음모는 구준을 중심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이 반복 및 심화되도록 배치하여 중심 음모가 완결된 후에도 문제의식이 지속되어 서사에 추진력이 사라지지 않게 구성하였다.

2절에서는 이 작품에서 음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하고 진실을 탐구하려는 의지로서 의미를 가짐을 확인했다.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 후기는 당파 간 알력 다툼이 극심했던 시기로 권력을 잡은 소수의 세력에 의하여 특정 사건의 진실이 만들어지는 사회였다. 이러한 배경은 당대인에게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불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인데 『구래공정충직절기』의 작자가 선인군 인물이 겪는 불행을 천의에 기대어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선인군 인물이 음모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선 다거나 공모자들의 처벌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소설이지만 사건의 진실을 가감 없이 그려 진실을 온전히 탐구하려는 의지의 산물로 해석된다.

이상을 보건대 『구래공정충직절기』에서 음모는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정소설이나 영웅소설에서도 음모가 자주 확인된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에서 음모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를 선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가정소설이나 영웅소설에서 음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검토하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

## 『문학과지성』의 이론적 기반과 미학적 실천

인 아 영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문학 계간지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당대의 문학 장 속에서 어떠한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고는 『문지』가 문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을 일관적으로 옹호했다고 보는 시각이, 『문지』의 이론적 뿌리를 프랑스 구조주의로 환원하는 오류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문학 장을 『창작과비평』 대 『문지』 혹은 정치성 대 문학성으로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문지』가 여러 필진들의 목소리가 곁항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문지』의 이론적 토대가 프랑크푸르트학과 이론 및 문학사회학 등 여러 이론적 입장과 상호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학관이 1970년대 중후반의 소설비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에는 1970년대 비평가들의 문학적 지향 및 한국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것은 1970년대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70년대 문학 장 속에서 『문지』가 외국이론,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이론을 수용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1970년대 신진 비평가들은 기성문단이 주관적인 인상비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극복방안으로써 외국의 문학이론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문지』 역시 한국사회 및 한국문학의 병폐로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을

제시하며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외국이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문지』에게 있어 ‘외국’이란, 정신적 고향이자 비판적 이성(理性)의 현현으로 여겨졌던 서유럽이었다. 서구지성사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과 이론은 거의 교류를 맺은 바 없이 각각 발전해왔지만, 『문지』는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향 아래 두 이론을 동시기에 수용했던 것이다.

3장에서는 『문지』에서 구조주의가 문학연구의 과학화 및 근대화담론으로서 수용되었으며, 이것이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7-14호)를 통해 근대문학사 서술이라는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문지』에 제출된 구조주의 관련 텍스트들은 초기에는 롤랑 바르트를 통해 실존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구조주의가 사조가 아닌 방법론으로서 수용되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문지』에서 구조주의는 문학비평의 형태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구조주의가 문학연구를 객관적인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 그리고 당대의 근대화담론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지』의 구조주의 수용은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1970년대의 분위기와 조우하여,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로 결산되었다. 「한국문학사」는 루시앙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라는 방법론을 통해 한국만의 개별적인 근대문학사를 서술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과 이론에 대한 『문지』의 관심이 마르크시즘적인 사회비판에서 비롯하였다기보다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성찰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리된 ‘문학’의 정의 및 외연이 1970년대의 구체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현장비평으로 이어졌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문사회학계 전반에 고조되면서 『문지』도 프랑크푸르트학과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대중문화는 산업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문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22-28호)로 이어졌다. 이 글은 참여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두 영역과 비판적 거리를 둬으로써 ‘사회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문학’을 ‘진짜’문학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문학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억압을 반성케 해야 한다는 입장은 1970년대 후반 김병익, 김치수, 오생근 등의 비평가들이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인 문학을 고평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문학 장에서도 통용되는 비평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 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이상주의의 변모 양상 연구

임진하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연구는 선우휘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적 이상주의의 변모 양상을 탐구하였다. 대표적인 월남 지식인인 선우휘는 서북 지역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분명했다. 그의 소설 역시 서북 민족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서북 민족주의 운동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그의 소설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민족의 역사적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의 예언자상과 이를 통해 회복되는 보편적 공동체의 이상은 선우휘의 소설 세계 전반을 관통한다. 본고는 선우휘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적 색채를 서북의 종교적 이상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듯이 월남 지식인들에게 있어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남한의 지배 이념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신생 후진국의 지식인으로서 선우휘에게는 냉전 논리만큼이나 탈식민이라는 과제 역시 절실했다. 이것은 주체적 행동을 제한하는 조건이기도 했던 바, 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우휘는 종교적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소설 창작에 임했다. 역사의 장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른 작업이었기에 그것은 분명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으나, 그 정치성은 고정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역사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선우휘 소설에서 종교적 이상주의가 나타나는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모했다. 주체의 해석에



따라 종교적 이상과 역사적 현실은 유동적으로 접촉했고, 거기에는 다양한 행동의 계기가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그 역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선우휘 소설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1965년 이전까지 선우휘가 창작한 소설에서 종교적 이상주의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했다. 선우휘는 피식민 경험과 한국 전쟁을 약소민족의 수난으로 인식했고, 이를 극복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적극적 행동의 주체로 거듭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에 내적 논리를 마련해준 것이 동향 출신인 함석헌의 기독교적 역사관이었다. 함석헌의 고난사관을 통해 선우휘는 탈식민과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이상에 근거를 둔 행동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까닭에, 거기에는 정치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와 그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계기가 동시에 존재했다. 3장에서는 1965년 이후 달라진 역사적 조건 속에서 종교적 이상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가능성이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 파병이 화두였던 1965년 무렵 선우휘는 탈식민과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퇴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비쳤다. 이 시기 발표된 작품들은 종교적 이상과 현실의 접점을 다시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우휘가 이상에 대한 내적 충실성에 집중하면서 현실 대응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역사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요청했던 신념이 자기배반으로 귀결된 것이다. 말년의 선우휘 소설에는 이와 같은 자기모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투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상과의 괴리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현실 그 자체였다. 종교적 이상과 역사적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가운데 끊임없이 재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둘의 관계 역시 재조정되었던 것이다. 선우휘 문학이 보여주는 것은 곧 그 접점에 대한 치열한 모색의 자취이다.

석사학위 논문

##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경성 거리의 생태학

오 금 화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은 1930년대 한국 근대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인식되어 온 박태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인회를 이끌어간 그의 문학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새롭게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된다. 1930년대는 한국의 근대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특수한 시간적인 배경을 갖는다. 특히, 식민지와 근대라는 이중적인 특성이 부여된 경성을 중심으로 당시 수많은 문인들은 자신의 창작 원천으로 되는 1930년대의 경성을 그 소설적 배경으로 작품에 자주 등장시켰고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경성(도시)과 근대성, 그리고 식민지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국의 모더니즘문학을 천명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되어왔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이 시기에 박태원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근대 도시 경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근대 거리의 문제가 박태원 문학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박태원 문학 연구에서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양분구도를 지양하는 연구 성과들을 이어가는 맥락 위에 놓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문학으로 평가받아온 1930년대 박태원의 작품들이 ‘산책’을 일삼는 ‘산책자 구보’의 영향권 안에서만 해석되어온 한정적인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문학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입각점을 제시하였다.

근대 도시 경성의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몸적 움직임이다. 여기서 근대적인 포장을 거친 거리는 근대 도시라는 새로운 풍경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가장 기본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된다. 즉, 사람들의 몸적 움직임(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거리”의 풍경을 제시하는 것은 당시 1930년대 한국의 “문체적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산책자 구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공통항으로서 작동되는 것이다. 또한, 작가 박태원은 이러한 거리의 문제가 보여주는 근대적 의미의 탐색을 인물들의 몸과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를 작품 속에 녹여 보여주는 것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해 예리하고 감각적인 면모들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식은 경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도권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특히는 ‘근대적 삶’ 속에 놓여진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또한 중요한 명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우선 박태원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거리와 근대 주체 사이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후기 작품으로 넘어가면서 거리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장과 변화를 보여줬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박태원의 초기 소설들을 중심으로, 시각의 우위에만 치중한 ‘산책자’의 행위의 의미를 몸적 ‘걷기’로서 치환시켜, 근대의 주체들로 되고 있는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만 치중되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기타 작품들로 확장시키는 논의의 구도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에서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낙조」, 「적멸」, 「음우」, 「나팔」 등 작품들과 초기에 발표한 글들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2장 1절을 통해, 근대적 주체들로 되는 등장인물들의 몸의 여러 감각들에 대한 반응 양상들을 그것과 연결되는 각각의 인물 형상들에 일치시켜, 근대적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는 작가의 치밀한 소설적 전략을 함께 보여줬다. 2장 2절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인물들의 몸적(육

체적) 감각의 움직임으로 되는 ‘걷기’의 행위와 그 의미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근대적 일상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여줬다. 특히, 「적멸」이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주인공들의 시각에 의해 포착된 거리 위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들이 갖는 ‘걷기’의 구체적인 형태로 되는 걸음걸이가 바로 본고가 주목한 부분으로 된다.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몸적 걷기에서 중요한 기호로 되고 있는 ‘발’과 그것의 대체적인 기호로 되는 ‘구두’의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다. 몸(육체)에서 발(구두)의 기호는 거리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데, 이는 박태원이 초기에 발표한 여러 작품과 글들을 통해 근대적 일상의 흐름에 놓여진 인간 존재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발설하는 강력한 기호로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의 확장을 보여준 골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고는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점차 가시화되거나, 혹은 근대 도시의 후미지고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입장에서 벗어나, 골목은 근대 거리와 연결되고 서로 유동적인 성질을 얻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근대 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을 그 전제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이러한 거리의 유동적인 성질을 공유하는 골목을 근대적인 ‘어둠’과 ‘밖음’이 보여주는 대위법적인 풍경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본고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나타난 ‘어둠’에 대해 느끼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 주목하여, 근대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틀 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반성적인 태도를 함께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근대적 ‘어둠’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3장 2절에서는 골목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유곽의 거리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유곽의 거리로 재탄생된 근대적 어둠의 골목은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연결시켜 당시 경성의 현실적 불안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대의 불안을 극복하는 모색의 출구로서 박태원이 주목한 것은 ‘아이’이다. 여기서 아이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자, ‘건강한 몸’을 갖는 강력한 기호로 작동된다. 이에 대해, 3장 3절에서는 근대 현실에서의 ‘희망 찾기’를 아이의 몸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박태원의

작품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이의 존재는 지저분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끝자락인 골목에서 출몰하기도 하지만, 화폐와 근대적 질서를 수호하는 어른들이 세계에도 등장한다. 즉, 아이는 근대를 초극해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후기 소설 중에서 「사계와 남매」에 등장한 ‘절름발이 아이’의 주인공을 통해, 근대 거리에서 “희망 찾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 염상섭과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 연구

페브리아니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작가 염상섭의 『만세전』(1924)과 『삼대』(1931), 그리고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의 ‘부루 4부작’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1980),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1980), Jejak Langkah(『발자국』)(1985)와 Rumah Kaca(『유리집』)(1988)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문화권에 위치하지 않지만 식민 지배를 겪은 적이 있다는 유사한 역사가 있어, 이 시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은 두 나라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양 작품에 나타난 두 작가의 탈식민적 글쓰기의 전략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위해 호미 바바와 스피박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 볼 두 작품에는 모방, 저항과 문화 차이, 하층민에 대한 묘사 등 식민 지배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나타난다.

2장에서 프라무다의 ‘부루 4부작’을 우선 살펴볼 것이며 식민지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문화와 토착민의 원래 있었던 문화들이 충돌하여 혼성성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피식민자가 식민지배자를 모방하는 행위가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 지배자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결국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 식민 지배자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이 자신들을 ‘모방하고 따르라’는 의지로 그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지만 그 이

면에는 감시를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 밖에도 문화적 갈등이라는 주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문화를 따르는 인물들과 그 문화를 반대하는 인물 간의 충돌이다. 전통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자바의 신념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후진성을 탈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하층민에 대한 주제가 ‘부루 4부작’에도 나타나며 농부 계급의 무력한 토착민과, 토착민 여성 인물을 포함한 하층민들에 관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 농부의 경우, 식민지배자와 지배자계급들을 지지하는 토착민들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여성 인물의 경우, 자바 풍습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염상섭과 프라무다의 작품을 비교해볼 것이다. 『만세전』과 ‘부루 4부작’을 비교해보면 피식민지배자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배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 주인공은 민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감시 또한 당하게 된다. 한국은 당시에 저항이 발생하는 강도가 높지 않아 감시의 강도 또한 세지 않았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감시의 강도가 처음에는 세지 않았으나,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져 결국 주인공을 유배 보내기에 이른다. 또한 한국에 전통문화와 근대문화 사이의 가치충돌이 염상섭의 『삼대』에 잘 포착된다. 여기서 나타난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인물은 특히 풍습과 명예 모두를 중요시 하지만, 그에 비해 프라무다의 소설에는 명예만을 중시한다. 염상섭의 『삼대』에는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은 근대적 사상을 중시하면서 물질주의에 타락하게 된다. 프라무다의 소설의 경우,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이 존재하지만 물질주의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염상섭 소설과의 차이점이다. 염상섭은 ‘조덕기’라는 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는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근대문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산주의자 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근대로 넘어가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프라무다의 소설에는 밍케라는 인물이 조덕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다. 밍케는 민족 조직 활동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양 작가의 작품에 담긴 하층민의 표상이 발견될 수 있다. 염상섭의 소설에 그려진 하층민의 표상을 프라무다 소설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염상섭은 빈곤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그렸으나 프라무다의 경우에는 토착민, 그 중에서도 토착민 농부의 사례를 주로 다룬다. 또한 양 작가의 하층민에 속하는 여성 인물의 표상을 비교해볼 것이다. 두 나라의 여성은 구식 가정에 태어나 가족이 결정한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여성 인물의 상황을 비교해볼 것이다. 양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본 결과, 작가가 밝혀준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만 양 작가만의 고유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와 관련하여, 염상섭의 경우,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의 상황 속에 술 문화와 여자와 관련된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작품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식민지와 관련한 경우는 염상섭은 친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프라무다의 경우는 반식민지의 측면이 보다 뚜렷하게 거론되므로 이에 대한 작가의 신념이 느껴진다. 또한 프라무다가 보여준 당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 상황은 국가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동시에 복잡하게 벌어지는 모습들이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지배자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인도네시아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아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민족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 간의 내부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민족은 이미 통합된 상태에 있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민족을 통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식민 지배를 겪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석사학위 논문

##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김 민 수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논문은 손창섭의 소설에서 항구적인 주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구속 원리에 대한 비판의식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공동체 의식과 관련 된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손창섭의 소설이 시기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문제의식 아래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의 문학성을 ‘전후’라는 키워드 속에서 설명하려 한 경향을 탈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의 작품과 전후문학과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낙서죽』, 「신의 회작」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작법상의 전략을 놓치게 만들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 창작된 신문연재소설로 이어지는 방향전환의 국면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장에서는 손창섭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실제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유학시절과 독서체험 정황을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소설 창작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창섭의 유일한 번역소설 『평요전』의 저본을 실증적으로 밝혀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20년대 일본에서 신조사와 개조사의 주도 아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세계문학진검류의 영향 속에 그를 위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손창섭이 수용한 루소의 『참회록』,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등과 같은 저작들은 그의 초기 소설 속에

주요한 테마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사회적 구속 원리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니체의 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경도는 손창섭이 소설을 통해 사회적 원리들에 대항할 때 저항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낙서죽』 속에서 개인을 압도하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코자 하였다.

3장에서는 손창섭이 1960년대에 초기 작품 활동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가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하였는지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195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을 일컬어 ‘순문학’으로, 1960년대 이후에 창작된 신문연재소설을 ‘통속소설’로 구분하는 틀을 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작가가 직접 참여한 『손창섭 대표작전집』의 편집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1961년에 발표된 「신의 회작」이 초기 소설의 문제의식을 한층 끌어올린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낙서죽』과의 관련성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작품 「신의 회작」은 루소가 『참회록』에서 보여주었던 ‘고백’의 원리를 차용해 ‘난센스’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전도의 가능성을 구축한다. 이때 두 작품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 확인된 인터뷰 자료와 산문 「반역 문학인의 허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난센스’라는 개념은 모리스 블랑쇼의 ‘결핍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손창섭은 ‘이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모색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손창섭이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치정문제를 치열하게 서사로 끌어들이면서 이성을 통해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4장에서는 197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뒤에 신문을 통해 연재한 두 편의 장편소설 『유맹』과 『봉술랑』을 ‘역사’와 ‘공동체’라는 키워드 아래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확인된 산문 「사학가의 책임」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는 것처럼 손창섭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지리와 역사과 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새로 발견된 전기적 사실과 더불어 손창섭이 1960년대에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역사단편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1970년대에 발표한 두 장편소설의 테마가 돌발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님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손창섭에게 소설 자체가 역사를 구성하는 글쓰기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착안해 『유맹』과 『봉술랑』 속에서 사회적 구속원리에 대한 비판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손창섭 소설에서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이 고유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재류외인’의 삶을 체득한 손창섭은 필요한 접근의 동인이 아니라는 루소의 논제를 받아들이면서 소설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에 항거해 나간 한편, 구속의 원리 바깥에서 가능할 새로운 공동체를 베풀고 있다. 인습적인 도덕률을 허무는 시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타자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았던 손창섭의 소설은 그 자체로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 정지용 시에 나타난 육화적 이미지 연구

전 세 진

2017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본 연구는 정지용이 ‘시’와 ‘언어’의 관계를 ‘육화’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시와 언어의 감각적 통합을 통해 시적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그것이 ‘육화적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지용은 그의 시론 「詩와 言語」에서 “詩의 神秘는 言語의 神秘다.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一致다”라고 선언하며 언어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육화(incarnation)’란 비가시적인 것이 물질성을 획득하여 가시적인 형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 ‘시’와 ‘언어’ 그리고 ‘이미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고는 정지용 시에서 나타난 ‘육화적 이미지’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한 시인의 사유를 고찰하고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현대시사에서 정지용은 탁월한 언어 감각을 발휘하여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사조적 개념에 국한한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작품이 온전히 해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정지용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초기 시편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나, 이 작품들이 담긴 정지용의 첫 시집 『鄭芝溶詩集』(1935) 자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육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서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도 발견되지 못한 것이다.

문학과 회화를 상호적인 관계로 바라보며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양상은 1920년대부터 발전하여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작가와 화가가 깊이 교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단적 상황을 고려할 때,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는 정지용의 시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반드시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수사였던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이다. 놀랍게도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의 회화적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 따라서 회화와 문학을 유비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수태고지〉의 기호적 특성을 살펴보고, 『鄭芝溶詩集』에 이 그림이 표지화로 장식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정지용은 난해하고 변형된 시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 고어,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 해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언어를 빈번하게 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정지용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어휘들은 정지용 시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정지용 시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을 ‘이행 기호’라는 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다. 해석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드는 어휘와 표현이 정지용 시의 본질이자 특성이며, 그것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도록 시를 ‘만든’ 의도를 파악한다. 「바다」 시편과 「毘盧峯」 해석을 통해 정지용이 이미지의 힘과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 꾸준히 언어와 시를 탐구하였음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이행 기호적 언어의 사용을 통해 다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유사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재현 방식을 고찰한다. 이것은 ‘신성’이 깃들어 있는 이미지는 실존하는 대상의 재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전혀 닮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낼 개념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명료성은 감정의 밀도 높은 응축과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지용 시의 모더니즘은 단순히 서구 영미 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그들이 마련한 형식을 따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통해 조선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 보편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추구함과 동시에, 가장 조선적인 방법으로 그 보편에 나란히 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白鹿潭』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鄭芝溶詩集』이 시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집이었다면, 『白鹿潭』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완숙된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한 이미지들이 담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지닌 시집이라고 볼 수 있다. 『白鹿潭』에 이르러 정지용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육화적 이미지’가 자리할 구체적인 장소가 마련되고, 이것이 ‘육화적 이미지’의 완결태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白鹿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시 형식은 정지용의 시를 보다 넓은 차원의 모더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정지용은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근대의 형식을 이룩하려는 심오한 변증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던한 것으로서의 모던이 아니라 전통 속의 모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으로서의 모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白鹿潭』에 이르러 정지용의 ‘신성’에 대한 관심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문예사조적인 관점에서 정지용 문학을 새롭게 해석할 관점의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이 순 욱

2017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양보는 비관여성을 핵심 의미로 가진다. 즉 양보는 어떤 사태가 다른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한다. 따라서 양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대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논문은 기대의 어떤 의미가 양보에 의해서 부정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책의 의미를 점검하였다.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는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A이면 B>라는 조건 형식은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는 ‘오직 B일 때만이 A’로 풀어 쓸 수 있다.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이와 같이 기대에 ‘오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양보문은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인지 조건적인지에 따라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나뉘는데, 조건적 양보는 범언어적으로 주로 세 가지 방책으로 표현된다. 조건적 양보는 한국어의 ‘도’와 같은 첨가 초점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조건적 양보는 이접 연결사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변수값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관함을 나타내는 자유 선택사 또한 조건적 양보의 표현에 쓰인다. 세 가지 방책은 주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지만 사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 의미와 관련해서는 척도성과 총망라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추가로 끝값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첨가 초점사 방

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는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쓰였음에도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없는 조건적 양보문이 확인된다. 논문에서는 기대가 ‘오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척도 함축이 없는 양보문이 조건적 양보문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장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의 초점이 끝값인지 아니면 단순히 척도 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척도상의 존재자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맥락적인 끝값의 개념은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맥락적인 끝값이 실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게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것들을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가 아니라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와 같은 부류로 보는 견해가 있다. 논문에서는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A어도 not-A어도’와 같은 사례들은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의 한 종류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 또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와 마찬가지로 총망라성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양보문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양보문에 총망라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총망라성은 기대가 가지는 척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는 반복적 구문과 단일사태 구문으로 나뉜다. 반복적 구문에서는 참여자, 시간,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양보의 의미를 표현한다. 단일사태 구문은 사태의 회수, 지속 시간, 강도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낸다. 많은 언어에서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은 서법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한국어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 근대시 형성과 漢文脈

정 기 인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본 논문은 한국 근대시 형성에 기여한 주요 문인들이 한문맥(漢文脈)의 자원을 활용하여 근대시를 창안했다는 데에 주목하여, 한국 근대시 형성과 한문맥의 연관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문맥’이란 한문이 속해 있는 맥락, 즉 한문을 포함하여 그것이 속해 있고 나타내는 사고, 감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한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한시적 특성, 시론에 나타나는 유학적 사유, 그들이 쓴 한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된 개념이다.

근대시 형성기 시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한문에 배타적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시론과 시를 썼고, 한시를 읽고 번역했으며 한시를 직접 쓰기도 했다. 특히 근대문학 형성기 문인들은 유년기에 한학을 학습하고 한시를 읽었기 때문에, 서구나 일본 근대문학을 수용할 때 이러한 한문맥의 관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에 비추어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을 추출하거나 언어 민족주의적 전제에 따라 ‘조선(어) 전통’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대시의 실상에 비추어 한국 근대시의 독특한 ‘근대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되지 못했던 한문맥과 한국 근대시 형성이라는 주제에 주목이 필요하다. 근대시 형성기 한문맥은 단지 조선의 한문전통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한문맥까지 포함하

는 매우 복합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한문맥이라는 중층적이고도 거대한 맥락을 제한된 분량 속에서 모두 서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첫째는 시론(문학론)에서 어떻게 한문맥적 개념들이 논리적 계기로 전제되어 있고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로는 그들의 국문시가 한문맥의 이미지나 한시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들에게 한시는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근대시 형성에서 한문맥적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Ⅱ장은 근대시 형성기에 한문맥 문화관습이 어떻게 지속되고 활용되었는지를 해명하려 했다. 이의 배경으로 당대 한문 교육의 비중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한시가 융성했던 상황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문맥은 박제된 전통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구문맥을 수용하고 번역하면서 갱신되는 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문으로 번역되면서 국문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정을 검토했다.

제Ⅲ장은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과 한문맥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였다. 최남선과 이광수는 한문맥의 이념을 활용했다. 최남선은 ‘입지(立志)’나 ‘성(誠)’과 같이 한문맥의 존송받는 개념을 사용하고 과거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면서 계몽의 논리를 펼친다. 그는 어수와 구수의 정형을 인식하면서 어수를 고정한 채 4행씩 2연이나 8행씩 2연 구성으로 대부분의 국문시를 쓴다. 특히 근체 한시를 본격적으로 『청춘』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국문시 또한 4행 4연 7·5조를 기본형으로 하는 국문 정형시로 수렴된다. 그는 시를 ‘읽는 시’와 ‘노래하는 시’로 구분하면서, 노래하는 시는 창가나 시조형식으로 썼다면, 읽는 시는 다양한 음수율과 운을 한시 번역을 토대로 실험했다. 최남선은 한시의 형식을 강하게 의식한 신체시 형식을 창안하지만, 조선적 특수성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는다. 그는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 그리고 “서자(逝者)로서의 물”이라는 한문맥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문시를 창작했다. 이는 최남선이 지속했던 ‘문(文)’의 이념하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열심히 수양하지는 계몽적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문맥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인자요산”을 바탕으로 한 준비론적 수양론의 상상력을 토대로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산의 이미지로 변화된다.

이광수는 표면적으로는 기존 한문맥과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사(士)’의 이념을 지속했다. 그는 ‘광이충지(擴而充之)’ 등의 한문맥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들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또 기존 한문맥에서 배척당한 ‘정(情)’을 주장했지만, 실상 그 논리는 기존의 ‘양성(養性)’의 내용이었다. 즉 최남선은 적극적으로 한문맥을 다른 문맥들과 병치하면서 다른 문맥들을 한문맥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면, 이광수는 표면적으로는 한문맥을 거부하였지만, 그 거부의 논리 속에는 한문맥이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광수는 한시 형식을 차용한 언문풍월을 쓰고, ‘송(頌)’, ‘송(送)’, ‘악부시(樂府詩)’ 등 한시 형식을 국문시로 실험했지만, 이 실험은 지속되지 못하고 조선어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인식도 개진하지 못한다. 그리고 “문장보국(文章報國)”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士’와 ‘文’의 이념을 자신의 한시에 담으며, 자신의 국문시에도 표출했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는 개인적인 내면의 고백이나 풍경의 발견이 아니라 선재해있는 문의 이념을 바탕으로 형상적(figurative)인 물의 이미지를 그리거나(최남선), 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적 자아를 구성하고 있었다(이광수). 즉 이들은 개성적인 자아의 내면이 아니라, 선재한 이념을 표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IV장은 김억의 문학과 한문맥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였다. 김억은 개성적인 문학을 옹호하며 언어 자체의 심미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을 벗어나며, 서구 낭만주의적 문학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천리(天理)’나 ‘사무사(思無邪)’와 같이 한문맥에서 존송받는 개념을 전유하며 논증했다. 김억은

개인적인 서간에는 한시를 써서 지인들에게 보내며, 한시의 형식을 그대로 국문시로 전유해서 썼고, 한시를 번역하는 것이 낫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800여 편에 달하는 한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조선(어)에 적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한시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조선적 근대시’ 형식인 격조시형을 창안했다. 김억은 근체시의 연술 구조인 대장(對仗)구조를 그의 초기 시부터 1920년대 시까지 반복하며 이러한 대의 구성으로 개인의 내면을 포착했다. 앞서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에서는 선재하는 문과 사의 이념이 시에서 나타난다면 이제 김억의 시에서는 그러한 선재하는 이념이 자아를 굳건하게 지탱하지 못한다. 그의 시적 자이는 “지평의 상실”로 인해 ‘해파리’처럼 의지할 곳 없이 유랑할 뿐이다. 아무런 방향성 없이 외부의 힘에 몸을 맡기는 해파리라는 상징은, 정체성을 굳건히 지탱하던 기존의 외부적 가치 지평 상실에 따른 정체성 혼란의 이미지를 포착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내면은 여전히 한문맥적인 대의 구성과 특히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포착된다.

제V장은 김소월의 문학과 한문맥의 관계를 해명하였다. 그는 ‘정성위음(鄭聲衛音)’과 같이 기존 한문맥에서 부정되던 개념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시혼」에서 한문맥을 심층적으로 구문맥과 국맥과 결합하여 변형했다. 소월 또한 한시를 번역하면서, ‘정성위음’적 성격을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한시의 형식을 바탕으로 국문시를 실험했다. 또 유배객의 심정을 담은 한시를 번안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국문시를 써서 망국민의 설움을 유배객이라는 한문맥의 주요한 전통에 기대어 표현했다. 김소월은 영원한 것과 변화하는 것, 그리고 빛과 그늘이라는 각기 구문맥과 한문맥 그리고 국맥이 상징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동력으로 삼아서 시를 썼다. 그의 국문시에는 한시의 영향이 세계관의 차원에서 하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또 김억이 형식적인 대의 구성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냈다면, 소월은 심층적으로 영원한 것과 변화하는 것의 대립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냈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한국문학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근대시 형성과 한문맥의 관련성을 고찰했다. 이렇게 근대시 형성과 한문맥의 관계를 해명한 작업은 한반도의 문학사가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의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졌다는 장기적 안목을 근대 이후로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문맥, 구문맥, 일문맥, 국맥을 뒤섞으며 이를 원천으로 삼아 풍요로운 시들을 창출해 낸 것이야말로,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사상과 문학을 소개하면서도 문과 사의 이념에 근거해서 시를 썼던 최남선과 이광수, 낭만주의적인 개성적 문학을 옹호하기 위해 한문맥의 개념을 전유한 김억, 구문맥, 한문맥, 국맥의 세계관의 긴장과 갈등을 샤먼이라는 국맥의 방법론과 노래의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낸 김소월,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과 그 풍요로운 맥락들을 잘 보여준다. 한문맥을 방법으로 하여, 구문맥과 한문맥을 상대화하고, 내재적으로 한국 시사를 재구성하며, 잊혔던 실험들을 복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한국 시사를 서구중심주의나 조선(어) 민족주의를 넘어서 복수의 근대를 복원하며, 나아가 동북아 한문 문화권의 유사와 차이를 건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서사 연구

이 지 훈

2017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고는 근대 초기 여행이 유학, 시찰, 관광, 순례 등 새로운 경험으로 다양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여행을 통한 공간 인식과 재현 형식이 당대 글쓰기 및 서사 양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여행기와 소설 등을 포함하는 여행서사에서 공간, 주체, 타자가 재현되는 양상 및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행은 공간적이고 문화적이며, 담론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이고, 경계 넘기를 통해 타자를 상상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기획이다. 그것은 다양한 글쓰기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경험과 재현 사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근대문학을 형성, 추동한다. 이러한 논의는 여행이 근대성과 근대적 주체, 근대 문학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이며, 특히 식민주체의 여행은 제국의 여행과는 다른 형식 및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19세기 후반에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는 미정형의 글쓰기와 문학 형식들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가능성의 시기였다. 당대 경험적 여행서사와 허구적 여행서사는 여행이라는 경험을 중심으로, 여행 주체의 내면 형성 및 언문일치체를 통한 1인칭 고백체 글쓰기 양식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여행서사의 미학적 특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관계는 1920년대 이후 여행기가 수필의 하위 장르로서 그 의미가 고정되고, 근대소설의 미학과 양식이 독자적으로 확립되면서 분리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여행서사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를 살피는 것은 다양한 서사 양식이 주고받는 영향 관계의 드라마와 함께, 문학적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결국 드러나지 못했던 근대 초기 문학의 가능성들을 새롭게 조망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의 2장에서는 19세기 후반 시작된 일본이나 서구 등 근대적 세계로의 유학이 당대 새롭게 나타난 여행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유학을 통해 창작되기 시작하는 여행기의 새로움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한 새로움은 경계넘기의 형식인 여행을 통해 근대적 문명의 공간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제국의 주요한 여행 형식이 모험이나 탐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전근대적 세계에 속해 있던 조선의 여행자들은 유학이라는 여행 형식을 통해 먼저 새롭게 문명을 익혀나가야 했다. 경험적 여행서사인 견문록 등과 허구적 여행서사인 신소설은 유학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서사적 주체를 확립해 나간다.

3장에서는 1910년 이후 여행에 대한 관념이 확산되면서 여행 및 여행기의 독서가 일종의 취미가 되고, 활동사진 등을 통해 풍경이 미적으로 인식되면서 감각적 주체가 탄생되는 과정을 살폈다. 당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행기와 여행지의 사진이 널리 보급되었고, 여행과 여행기의 독서는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적 취미는 주체의 미적인 능력이나 판단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여행 취미의 탄생은 명승지가 새롭게 부각되고 여행지의 미적인 풍경이 주목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여행은 여행자의 미적인 감수성을 기르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이 지점에서 여행기와 소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4장에서는 1910년대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의 정책적, 상업적 단체 여행인 ‘시찰’, ‘관광’에 대해 살피고, 이것이 1920년대 국토순례라는 여행 형식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관광은 개인의 욕망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근대적 상품의 일종이지만, 근대 초기 일본의 경우 단체관광을 통해 전승지인 만주와 조선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제국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 조선은 야만적 여행지로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한편 조

선의 여행자들은 일본을 시찰하면서 일본이라는 외부의 문명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한다. 여기서 식민지의 관광이 갖는 성격 및 한계가 드러난다.

한편 경험적 여행서사가 국토순례의 형식으로 과거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야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허구적 여행서사는 여행기와 단절하면서 근대 소설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만세전」은 서사 내에서 사실과 허구가 교섭하고, 경험 주체와 서술 주체를 극적으로 분리시키는 회상의 구조를 통해 경험의 동시성을 추구하는 여행기와 결정적으로 분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행서사는 담론적, 미학적 측면에서 1920년대 이후 경험적 여행서사인 여행기와 허구적 여행서사인 소설로 완전히 분화되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백 채 원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의 피동문을 대상으로, 피동사의 형태적 특성과 피동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동문을 고찰하였다.

첫째, 피동에 대한 유형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피동의 원형적 특성을 정립하였다. 둘째, 피동의 원형적 특성을 근거로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 피동문의 유형을 나누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셋째, 피동문의 전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피동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혔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은 본격적으로 피동을 다루기 위한 예비적 논의에 해당한다. 피동을 원형적 접근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피동의 원형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것들 간의 위계를 설정하여 논의의 기본적인 틀로 삼았다. 그리고 이 원형성을 근거로 피동문을 원형적 피동문, 준원형적 피동문, 비원형적 피동문으로 분류하였고, 준원형적 피동문과 비원형적 피동문을 이루는 동사들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피동문을 기본적 의미와 부수적 의미로 나누어 피동문의 의미 유형을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정립한 피동의 원형성을 적용하여,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의 피동사의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원형적 피동문은 타동

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가 이루는 구문이며, 준원형적 피동문은 자타 양용 동사가 이루는 자동 구문이다. 비원형적 피동문은 자동사 어기에 피동 표지가 결합한 구문이다. 그리고 접사의 이형태 목록을 제시하고 시기별로 각 이형태가 파생시킬 수 있었던 동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특히 접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피동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피동문의 통사적 특성을 논하기 위해,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격 표지를 고려하여 특징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폈다. 또한 흔히 목적이 있는 피동으로 논의되어 온 ‘을/를’ 피동문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정립한 피동문의 의미 유형을 근거로,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 피동문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를 검토하였다. 해당 의미들의 상관관계도 고찰하였다.

제5장은 지금까지 밝힌 주요점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앞으로 본고의 연구 성과를 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본고는 중세 및 근대한국어 피동문의 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논의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어 피동문이 가지는 특성을 범언어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한국어 피동문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연구

이 경 림

2017년 8월 현대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논문은 신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인 ‘악’이 무엇으로 규정되었는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어떤 기능을 행하는가를 규명하였다. 표상이 특수한 인식의 형식으로서 사회화·역사화의 산물이라고 할 때, 악의 표상 체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함축한다.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체계는 부정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형성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국면을 드러내준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하던 근대로의 전환기에 존재한 문학 장르로서 신소설의 의의는 그것이 특정 시기에 수행한 지식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근대 전환기의 가장 대중적 문학 형식으로서 신소설이 기존의 악의 표상과 교섭하며 새로운 악을 가시화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과제였다.

II장에서는 전근대 사상·문화에 나타난 악의 표상과 이와 상응하여 만들어진 전근대 소설의 서사구조·인물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신소설의 토대를 규명하고자 했다. 전근대 사상의 주요 요소인 유교, 불교, 도교 각각에서 선악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층위에서 선악에 관한 철학적 차이들은 단순한 공통 인식으로 수렴되었다. 대중적 층위에서 선악은 대체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질을 기술·판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기준으로 개별 행동의

선악을 판별하는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선악에 각각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요소는 근대 초기 악의 표상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선악에 관한 공통인식에 대한 미학적 상응물이 복선화음이라는 서사구조다.

III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 신소설을 대상으로 근대 전환기에 출현한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화된 악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애국계몽 담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담론이 공익을 공동선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익을 저해하거나 공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기심이 악인의 주요 자질이 되었다. 독립 국가를 지향하는 국민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적 정체성인 국민 의식의 획득을 저해하는 비국가주의로서의 이기주의가 악으로 규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구 양반 계층이 근대 사회의 지도자로 이행하기 위해 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완고가 악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근대 교육을 중심에 둔 계몽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악에 대한 대처 기제도 변화하였다. 근대 교육이 도덕적 악에의 대응 기제로 제시됨에 따라 악인이 근대 교육을 통해 교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IV장에서는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체제가 성립하는 역사적 국면 속에서 식민지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을 고찰하였다. 근대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구성원의 보호를, 대내적으로는 법 질서 확립을 내세움으로써 그 존재를 합리화하고 폭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 체제 성립이 식민지 지배 체제 성립과 중첩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악의 표상은 근대 국가 체제=제국 체제에 대한 적응과 저항으로 분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는 근대 국가의 무능력·방관을 폭로하는 ‘무법자’와, 근대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가하는 힘을 과시하는 ‘범죄자’ 인물 유형의 분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V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식민지 시기 신소설을 대상으로 악의 표상에서 주체

성의 영역이 열리는 궤적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죄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악의 표상이 정치라는 외부적 관계가 아니라 회개·속죄의 구조를 통해 주체적·내면적 관계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죄와 관련하여 악의 내용은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악은 주체가 스스로 인식하고 응분의 속죄행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악의 원인인 욕망, 욕망을 추구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이성과 욕망을 조정하고 속죄를 행하게 하는 감정에 주목하는 형상화 방식이 부각되었다.

박사학위 논문

##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임 미 진

2017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이 논문은 1945~1953년 소설을 대상으로 ‘해방’의 테제를 수행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젠더적 현실 인식에 의해 출현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방 후 문학의 지형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족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재사유하게 한 동시에 젠더에 관한 인식 체계에도 극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후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부녀국 설치, 여성 참정권 획득, 공창제폐지령 등의 법률적 시행은 여성해방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시행이 곧 실질적인 여성해방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젠더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해방 후 문학에서의 현실 인식을 당대 젠더를 둘러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면 과연 어떤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II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까지 김남천, 염상섭, 정인택, 이선희, 지하련의 작품을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행위의 의미효과를 살펴보았다. 해방 후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은 공적대의를 실천하는 민족주체로서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III장에서는 1947년 중후반부터 1950년 전쟁 이전까지 임옥인, 장덕조, 최

정희, 김말봉의 작품을 대상으로 사적 경험의 공론화를 통해 생활이 구축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1947년 중후반은 이념대립이 극에 달한 동시에 3.8선의 분할이 지속되면서 조선 경제구조의 파탄이 극심해진 시기였다. 경제구조의 파탄이 생활의 위기로 이어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 여성작가는 정치적 이념과 그 실현의 가능성보다 여성의 생활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이들 작가는 여성의 새로운 자기정립과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공감과 관찰을 통해 여성의 가난한 삶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침묵된 ‘목소리-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사적 경험을 공론화하였다.

IV장에서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장덕조, 한무숙, 손소희의 작품을 대상으로 국가이념의 권력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젠더 위계질서의 공고화와 그 불안정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쟁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질서의 성역할을 강화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던 젠더 행위는 전쟁기를 거치면서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남성성의 전쟁 이념을 고발하고 내면으로 후퇴하였다.

1945~1953년의 문학은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남성/여성작가가 재현한 젠더는 고정된 성적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며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 소설에서 젠더는 그의 이야기(history)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her story)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욕망하게 하는 기제로 기입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소설의 젠더적 현실인식의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이 행 미

2017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당대 가족법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근대법의 도입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질서 안과 밖에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갔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영향을 미친 가족법은 근대와 전통의 길항, 젠더불평등, 규율권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제도이다. 조선총독부는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호적제도와 친족상속법을 통해 근대성과 통치성이라는 양면성을 바탕으로 한 조선 가족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지도했다. 한편 민족공동체의 주요 단위인 가족의 질서를 지배해왔던 관습적 규범은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근대법과 공모 또는 경합을 벌이며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국가법에 내재된 해방과 억압의 속성을 직시했고, 그 속에서 아직 제도화/규범화되지 않은 권리와 새로운 가족상을 서사적으로 구현해냈다. 가족법의 시행으로 발생했던 긴장과 충돌의 현장 속에서 생성된 물음이 당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핵심적인 매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가족법의 전개 과정과, 그로 인해 달라진 가족 관계 및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족법의 시행에 따라 조선의 가족은 구성원의 결합과 해체가 용이한 집합체로 변모



해 나갔다. 이는 가족의 신성성을 탈각시켜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내재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총독부는 조선 가족의 문명화를 선전하면서 가족법에 내포된 통치 전략과 전근대적 요인을 은폐하였다. 그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가족법에 내포된 해방과 억압 양면을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특히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의의 초점은 현행 법률 아래 구속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권리 부재 문제에 있었다. 당대 법의 전개와 그와 병행했던 담론장의 논의 속에서 형성된 법에 대한 감정과 의식은 문학적 글쓰기의 주요한 동력이자 자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III~V장은 공시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가족법의 문제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는 주제의식을 형성했음에 주목하여, 관습적 가족에서 법적 가족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적 국면을 부부, 가족, 민족의 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론의 III장에서는 사적 계약에 토대를 둔 법적 부부만을 인정하게 된 변화 속에서 여성 인권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였다. 법에 의해 공인된 부부는 근대적 의미의 가족을 성립하기 위한 필수 단계지만, 한편으로 법의 내부와 외부를 선명하게 나누어 법의 그물망에서 배제되거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 1910년대는 법적 이혼 관념이 등장했으나 구체적 절차가 명문화되기 전으로, 당시 지식인은 계약의 합리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혼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구여성 아내의 인권 문제가 고려되고 있음을 밝혔다. 1920년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로 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모순적인 법조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된 존재였다. 당시 발표된 소설은 여학생이 첩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차원에서 성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930년대는 신가정 담론의 확산과 함께 아내의 시점에서 가족의 문제를 그리는 소설이 여러 편 창작되었다. 계약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가족법에 내포된 젠더불평등 요인에 대해 심도 깊은 문제제기를 보여주었다.

IV장에서는 가족 질서 및 가족 관계 형성에 법의 개입이 광범위해지는 현실을 문제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살펴보았다. 당대 가족법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의 하나였고, 가족의 자율적 질서를 구성했던 이른바 ‘가족의 법’은 체계적인 국가법으로 포괄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당시 작가들은 가족의 파탄과 해체되는 모습 혹은,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가족상을 형상화하여 국가법으로 수렴되지 않는 가족과 개인의 의미를 탐구해 나갔다. 나도향과 김동인의 소설에 나타난 전근대적 가족의 법인 관습적 규범 또는 감정과 본능에 근거한 사적 처벌에는 국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제로 자리한다. 염상섭은 근대법과 관습이 착종된 당대 가족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하면서, 가족과 개인을 포획하고 지배하려는 식민지 공권력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려냈다. 한편 심훈과 채만식은 당대 담론에 수용된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베벨과 엥겔스의 논의의 영향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가족을 지탱하는 법률의 한계와 국가법에 귀속되지 않는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V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지닌 자유와 평등의 한계를 표면화하는 민족 간 결합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주목하였다. 한일병합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내선결혼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내포된 동화와 배제의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식민지 시기 가족은 민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지표였다.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가족 관념은 민족 경계를 넘어 형성된 가족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근대법과 관습적 규범에서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형태에 내포된, 가족의 배타적 성격을 문제적으로 나타낸 작품을 살펴보았다. 본적과 혈통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고향의 의미를 형상화하거나, 남성과 달리 적(籍)의 이동이 용이했던 여성이 민족 경계를 넘어 행한 연애와 가족형성의 문제를 서사화했다. 여기에는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유와 순혈주의적 전통가족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법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개인의 삶과 권리 문제를 법감정의 차원에서 폭넓게 형상화는 작품의 의미를 규

명하였다. 당대 사회제도로 등장한 가족법을 통찰하고서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생산한 근대문학의 대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사회를 고찰하는 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해방 이후 계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작가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보여준 더 나은 삶을 향한 풍부한 가능성의 지표들은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유 연(LIU JUAN)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어지다’ 및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로 간주하고, 이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의미 유형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다양한 상태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다. 본고에서는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 및 타동사와 폭넓게 공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사와의 결합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자동사와 공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한 이유를, 자동사와 ‘자동사+~어지다’의 어휘상적 의미 및 논항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쓰여지다’, ‘보여지다’ 등의 표현들은 피동사 ‘쓰이다’, ‘보이다’가 다시 피동 구성 ‘-어지다’와 결합하는 이중피동표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쓰여지다’, ‘보여지다’와 같은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쓰이다’, ‘보이다’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피동사에

‘-어지다’를 첨가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가지는 어휘상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소위 이중피동표현을 다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가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맑아지다’, ‘높아지다’와 같은 어휘는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풀이는 ‘맑게 되다’, ‘높게 되다’로 되어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공통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변화 구문의 차이점을 밝히려 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와 같은 ‘동사+-게 되다’ 구문은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장들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가 ‘예정, 예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예정된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미 실현된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게 되다’ 구문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이를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제의 두 가지 의미 범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건 범주를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할 때에는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의 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게 되다’의 완망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 어미, 그리고 보조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과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게 되다’가 결합되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게 되다’는 비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면서’, ‘-고’, ‘-는다’, ‘-고 있다’ 등과는 공기할 수 없으며, 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고’나 사건의 내부 과정을 분석하지 않는 ‘-어 있다’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게 되다’가 완망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뒹받침한다.

‘-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란스러움과 소위 이중표현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구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어 상 보조용언에 대한 계량적 연구

이 민(李敏)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본고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상 보조용언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이란 한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부르는 진행상, 지속상, 결과상, 완결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 의미는 어휘, 어미, 보조용언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상 보조용언에 한해 살펴본다. 본고에서 고찰한 보조용언에는 ‘-고 있-’, ‘-는 중아-’, ‘-어 가-’, ‘-어 오-’, ‘-어 있-’, ‘-어 버라-’, ‘-어 내-’, ‘-어 놓-’, ‘-어 두-’ 등이 있다.

상 보조용언의 특성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00년이 조금 넘는 ‘현대 한국어’라는 시간 틀 안에서 상 보조용언들은 사용의 변화를 보였는가? 둘째, 상 보조용언은 장르별 사용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국어의 상 표지 쓰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어의 상 보조용언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현대 한국어의 시기별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소설 말뭉치를 대상으로 상 보조용언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고 있-’은 1940년대부터 출현빈도가 증가하다가 1970년대에는 빈도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는 중아-’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어 가-’와 ‘-어 오-’는 20세기 초반에는 많이 쓰였으나 점차 사용의 폭이 줄어들었다. ‘-어 있-’은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어 두-’는 1950년대부터, ‘-어 놓-’은 1960년대부터, ‘-어 버

라.’와 ‘-어 내.’는 1970년대부터 사용빈도가 감소되었다.

상 보조용언이 장르별로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2000 년대의 다섯 장르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소설 대화, 소설 지문, 드라마 대화, 드라마 지문, 신문 등 다섯 장르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를 본고의 주요 고찰대상으로 하고, 세종문어 형태분석 말뭉치와 세종구어 형태분석 말뭉치를 참조용으로 사용하였다. 고찰 결과 ‘-고 있.’은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문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어에서도 특히 신문 장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는 중아.’도 ‘-고 있.’처럼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보다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신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어 가.’와 ‘-어 오.’도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이들은 구어에서는 장르별 차이 없이 모두 낮은 빈도로 사용되고, 문어에서는 약간의 장르별 차이를 보인다. ‘-어 있.’은 구어보다 문어에서 많이 쓰이고, 소설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어 버라.’는 문어에서 많이 쓰이지만 구어에서도 상당한 빈도로 쓰임을 확인하였다. 문어 중 소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신문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어 내.’는 드라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소설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어 놓.’은 장르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어 두.’는 소설에서는 지문과 대화의 차이가 없지만 드라마에서는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한중 상 대조 논의에 있어서도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계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대조 논의는 대부분이 표지대 표지의 대응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런 연구 방법은 두 언어 상 표지들의 이상적인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이런 이상적인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고 있.’과 ‘-어 있.’을, 중국어에서는 ‘在’와 ‘着’에 대해 병렬 말뭉치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원전 텍스트에는 상 표지가 있는데 번역 텍스트에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상 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습관상이나 일반적 사실을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고 있.’



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在’나 ‘着’와 같은 상표지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고 있’은 신문 텍스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신문 텍스트에 상 표지를 잘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배 하 은

2017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은 1980년대 문학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간 구체적인 국면과 양상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양식적·미학적 특성의 핵심이 언어 및 행동 양식으로서의 글쓰기 행위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세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문학의 수행성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민족·민중문학과 리얼리즘론이 1980년대 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방식을 지배해오면서 1980년대 문학은 곧 경직된 이념성의 문학이라는 문학사적 통념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그 자체로 정치·사회·문화적인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해간 장이었던 1980년대 문학의 의미와 가치, 생기와 역동성에 대한 탐색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통념을 해체하며, 민족·민중문학과 리얼리즘론의 규정력으로부터 벗어나 1980년대 문학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의 시도들로부터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을 포착하고 분석한다.

2장에서는 1980년대 초 문학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는 문학장 내 픽션과 논픽션의 위상이 뒤바뀐 양상을 르포와 수기로 대표되는 논픽션적 글쓰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및 그 배경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1980년대 전반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소집단 문화운동을 ‘문화적인 것의 매체화’로 정의할 수 있는 문학(성) 개념과 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하며, 1980년대 문학 특유의

수행성과 문학·문화운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한편 이러한 변화들과 맞물려 등장한 ‘소설침체론’이라는 비평 담론이 리얼리즘 문학 체제에 나타난 균열의 징후였음을 규명함으로써 1980년대 중·후반 소설 미학에 나타난 변화의 배경 및 전사를 확인한다.

르포 양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3장에서는 1980년대의 대표적인 르포 작품집과 르포 전문 무크지의 형식과 내용, 스타일과 주제의식을 분석함으로써 논픽션적 사실(fact)에 기초해 재구성되는 ‘문학적 진실성(veracity)’의 개념과 그것이 실제 글쓰기 차원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가령 황석영은 당대에 ‘르포소설’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어둠의 자식들』에서 르포와 체험 수기, 소설의 특성이 뒤섞인 ‘민중자서전’ 양식을 실험하며 도시하층민의 다층적인 목소리와 삶의 리얼리티가 독자에게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했다. 박태순은 기행르포 『국도와 민중』을 통해 국토 곳곳을 탐방하며 수집한 민중들의 풍속과 이야기를 토대로, 개발독재 담론과 민중문학의 아카이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이 두 기존의 아카이브에서는 배제·억압되었던 민중들의 목소리와 삶이 들리고 읽힐 수 있게 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수행한다. 조세희는 사진르포집 『침묵의 뿌리』에서 산문적인 텍스트와 소설텍스트, 사진, 그리고 사진에 대한 주석이 뒤섞인, 장르융합/장르해체적인 동시에 매체혼종적인 구성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이 타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며 그것에 감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양식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1980년대 문학장 안에 자리매김하면서 1980년대 문학을 문학사의 다른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지어주는 특징이 된 노동자 수기를 수행적 정치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노동자 수기가 ‘문학’ 양식으로 호명되며 문학장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글쓰기의 복권과 ‘문학적 민주주의’ 현상은 문학 개념과 문학의 장르 체계를 새롭게 사유하고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문학적 민주주의’란 문학적 글쓰기라는 언어 행위를 통해 세계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사물들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사회세계 내에서 각자 자신의 몫과 권리를 확보하게 하는 자유로운 문자 체제를 의미하는데, 1980년대 노동자 수기가 바로 이를 실천

하고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1980년대 전반기 여성 노동자들의 장편 수기는, 노동자들 몫의 언어를 배분하며 그들의 신체/존재가 사회세계 내에 일정한 장소와 위치, 나아가 일정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실존을 재구성하는 정치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르포 및 수기 양식과 절합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소설 양식에 나타난 미학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한다. 5·18의 역사화와 증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르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작업과 구성 방식은 이후 5·18의 소설화 작업에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부여한다. 그 가운데 민중항쟁의 역사의 구체적인 국면들을 구성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로 수렴되지 않는 개별적인 체험들과 목소리들, 기억들에 대한 문학적인 증언의 수행을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편 1980년대 후반 문학장의 지배적인 양식인 노동소설에 서는 학출 노동자/활동가 작가들의 소설이 르포나 노동자 수기의 양식적 특성을 전유하는 가운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에 의해 노동소설의 혁명적 이념성이 강화되는 양식적·미학적 특징이 발견된다. ‘재현의 정치’의 미학적 산물인 전형을 강조하는 노동소설과는 대조적으로, 김영현과 김향숙의 소설은 그러한 전형, 곧 당대 운동권 지식인·학생과 노동자·노동운동가의 지배적인 표상을 초과하거나 거기에 미달하는 타자적인 존재들의 역능을 소설화함으로써 재현의 정치를 넘어서는 ‘문학의 정치’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집단적인 주체나 그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과 일상, 내면, 미시사 등과 같은 ‘1990년대적인 것’의 등장과 형성을 예비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에 대한 연구:

한·중 대조를 중심으로

張 會 見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본 연구는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의 시각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mightiness, 顯著性) 정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사의 본래 역할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은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까지 명사적 표현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확장성은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라고 한다.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He is good at swimming.’뿐만 아니라 ‘He is a good swimmer.’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그는 수영을 잘한다.’라고만 표현하는 현상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어를 비롯한 동양 언어보다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들에서 명사의 활동 영역이 더 넓다고 지적하고 전자를 ‘동사 중심 언어’, 후자는 ‘명사 중심 언어’라고 보았다. 이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된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는 언어유형론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인 만큼, 같은 부류로 간주하는 언어들 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거친 분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동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두 언어의 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확장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명사적 표현의 확장에 있어서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를 대신하여 ‘나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표현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스럽군.’을 대신하여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이군.’을 사용하거나, ‘난 지금 밥 먹고 있어.’를 대신하여 ‘난 지금 밥 먹는 중이야.’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일상 회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에 비해서 형용사나 동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명사적 표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②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 구조에서 동사가 앞뒤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하여 생략되는 구문, ③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그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문장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 구성력을 보인다. 한국어에서 명사(형)가 홀로 이루는 문장은 주로 소형발화와 제목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문장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의 명사(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 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국어에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박사학위 논문

##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학적 연구

미에 미에 머

2017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하여 단어 형성론적인 관점에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론에서는 단어형성론적 관점에서 형용사를 단순어와 복합어로 분류하고 다시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거시구조 논의는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로 나누어 전개하고 미시구조 논의는 표제항과 풀이항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표제항에는 표제어의 표시, 원어, 발음 표기, 품사, 전문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풀이항에는 뜻풀이, 용례와 부표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는 표제어 선정을 다루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로서 21세기 세종 계획(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구축된 550만 어절 규모)의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빈도 2 이상이 되는 형용사들을 표제어로 삼았다. 단순어 225개, 합성어 110개, 파생어 2,621개, 총 2,956 개의 형용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동음이의어는 하나로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 개수는 3400개가 넘는다. 표제어의 배열은 일반적인 사전들처럼 자모음 순으로 하였다.

3장에서는 표제항을 다루었다. 표제어의 표시에서는 복합어의 중간에 붙임표 ‘-’를 사용한다. 붙임표의 사용이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표제어의 단어

구조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음이의어의 경우 어깨번호로 표시하고 발음 표기는 미얀마문자로 제시하며 품사는 한국어의 품사대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바탕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 기술을 제시한다. 뜻풀이에 있어서 한국어 사전에 나타나는 뜻풀이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대역 영역에서 표제어의 의미 영역의 외연뿐만 아니라 내용적 세부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의 뜻풀이는 7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용례 기술에서는 용례의 요건으로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말뭉치에서 나온 용례를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할 것,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와 문형은 간단하면서 실용형태를 반영할 것, 그리고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에서는 표제어 간의 느낌의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부표제어로 언어, 관용구와 속담에 대하여 사전 편찬 기술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표제어에 많은 갯수의 부표제어가 존재할 때 모든 부표제어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언어의 3가지 구성 중에서 특정한 구성을 가지는 언어는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문장이나 형용사구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에 흔한 구성의 언어는 구성요소 간 자유결합과 비자유결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시할 표제어를 선정한다고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사전 사용자를 적극적인 학습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언어의 산출적 정보를 참고상자에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상자의 내용은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언어의 산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7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